

2010.07 Vol. 216 July



2015년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문화예술로 즐기는 인생의 황금기,
문화로 나누는 아름다운 세상”



어르신문화학교 사업

인생의 황금기를 문화예술로 즐기는, 어르신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입니다.



찾아가는 어르신문화학교 사업

어르신 동네의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서도 어르신문화학교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사업

어르신문화학교 수강 어르신들이 공연단을 만들어 문화소외지역을 찾아 문화봉사를 펼칩니다.



어르신 생활문화전승프로그램 사업

어르신들의 삶의 문화(생활문화, 생애문화, 경험과 지식 등)를 창조적 문화콘텐츠로 개발합니다.



어르신문화단체 사회적기업화 추진

어르신문화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립니다.



Contents

2010. 07 Vol. 216 July

02	특별기고	문화원, 뭇쳐야 산다 역어야 산다
06	한지붕 한술밥	전남 곡성문화원
10	그의 노래를 들어라	함께 호흡하는 한국음악의 숨겨진 리더십 박과 장구
15		대나무에서 듣는 노래
19		가야금으로 소리의 물결을 이루다
22	책 수집가 안정웅의 오거지서 (五車之書)	작은 책 큰 지식 우리나라
28	안식의 전환_생태문화 더불어 살기	산양아 북극곰아 잘 지내니?
34		K씨,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다
40		세상에 나쁜 벌레는 없다
46	한국의 예절	공통예절
52	연합회 레이다	문화원 이모저모
58		우리문화소식
60		원장동정



등록번호 서울라 12184 발행 한국문화연합회 | 주소 우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상우빌딩 1202호 | 홈페이지 www.kcod.or.kr | 전화 02)704-2311~3 | 팩스 02)704-2377 | 발행·편집인 최종수 | 편집위원 국호현(대산문화재단 사무국장), 김중영(주 시가문화원장), 박덕규(단국대 교수), 한춘성(성남문화원장) | 편집발행 문선희 | 편집 디자인 디자인 디자인 인크 02)332-7924 인쇄 태일 세인파 02)2268-2111 표지 사진협조 팽택문화원

원고는 편집부와 연락 후 우편이나 e-mail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원고 접수 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e-mail로 보낼 경우 300dpi 이상 해상도로 스캔을 받은 후 보내 주십시오.) 우리문화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우리문화'를 보내드리거나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게재된 기사 및 이미지는 한국문화연합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책자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정가 3,000원

특별기고

문화원, 뭉쳐야 산다 역어야 산다

금산문화원 사례로 살펴보는
문화원의 지역 네트워킹의 당위성



- 금산다락원
GEUMSAN DARAGWON
- ↑ 생명의 집
 - 금산 향토관
 - 문화의 집
 - 장애인 청소년의 집
 - 노인 여성 농민의 집
 - ← 건강의 집
 - 만남의 집
 - 청산 아트홀
 - 인삼고을 도서관
 - 기적의 도서관
 - 청산회관



1. 문화원의 기능과 회원 재정립의 당위성

문화원의 네트워킹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선 떠오르는 말이 있다. 네트워킹은 이른바 요새 유행하는 소통(疎通)의 문제이다. 소통하기 위하여는 먼저 자기만의 가치인 변별적 가치가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화원의 변별적 가치를 어디에서 찾을 것이며 또 다른 문화단체와의 차이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이 다른 무엇이 있어야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알아야 보인다고 말한다. 당연히 알아야 제대로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보다 못하고 또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다. 이 알고 좋아하고 즐기는 것을 한꺼번에 가능한 곳이 바로 문화원이라 생각을 한다.

문화원의 주요 목적을 문화교육적 기능, 지역사수집연구 기능, 행사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사회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 중심으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행사를 수행한다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이제는 다시 생각을 할 때가 되었다. 문제는 사무국이 전문가에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데 있다. 이제는 아니다. 사무국은 조정하고 보조하는 데에 그쳐야 한다. 전문가가 문화원의 주체인 회원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거나 이벤트업체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문화원은 철저하게 회원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전문가는 사업의 극대화를 위하여나 사업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식으로만 활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단계가 되어야 비로소 네트워킹과 소통의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

문화원의 회원 구성은 전문가 단체와 동호인 단체가 서로 역할을 담보하는 역동적으로 구성을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향토사연구소의 경우 자문위원과 동호인 회원으로 구성을 하여야 목적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있듯 문화원 회원은 다양하게 구성하고 그 구성된 단체는 사무국 중심이 아니라 단체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렇게 구성된 단체에서 추천한 이사들이 모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또 각 단체





의 대표들이 모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비로소 문화원의 회원이 변별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금산문화원 네트워킹 구축사례

1) 각 단체의 구성과 소통

금산문화원은 현재 18개 단체와 8개 동아리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원 회원이 되려면 먼저 각 단체의 회원이 되어야 하고 의무적으로 회비를 납부하여야 비로소 문화원 회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입이 된 회원이 자체적으로 문화교육을 받고 20여년의 활동을 하면 몇 명은 전문가의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다.

18개 단체는 회장을 중심으로 하여 내년에 실시할 사업을 결정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을 하고 있다. 각 단체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흥미를 넘어 열정을 쏟아 만족에 이르게 되어 각 단체의 변별성에 갖게 되고 이러한 힘이 모여 금산문화예술제를 통하여 발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변별성을 갖는 각 단체는 4계절축제와 마을풍류전을 통하여 공연자와 관객이 서로 소통하는 감동을 창출할 수 있다. 금산문화예술제에서나 발표회를 통하여 자기 단체의 다른 것을 보여주었다면 이러한 행사를 통하여 자기 장르를 넘어 지금 여기에서만 느낄 수 있는 소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결국 금산문화원 각 단체 소통의 과정을 보면 목적을 금산 또는 마을이미지 창출에 두고 먼저 금산역사문화연구소에서 각 마을의 변별성을 찾아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여 보고서를 내고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각 단체에서는 그 마을에 맞는 공연 또는 전시를 기획하고 실행을 하여 각 마을의 이미지를 창출하여 마을 발전 나아가 금산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그래서 금산문화원에서는 이벤트회사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모든 행사를 수행하고 있다.

2) 금산문화원 공간의 소통

금산문화원이 자리하고 있는 금산다락원은 각기 다른 12개 시설이 하나의 공원처럼 구성되어 있어 국내적으로 매우 특이한 공간구조를 갖고 있다.

다락원 안에서 같은 기능을 하는 공간이 없다. 그래서 문화원에는 회의장, 공연장, 전시장이 없지만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공유시설이 다락원에 있어 우리가 필요할 때는 다락원에 있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금산문화원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면 그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서 각종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이 절감이 되고 그 예산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에 추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3) 다른 기관과의 소통

다른 기관 특히 군청의 특정 사업을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각 단체의 활성화와 문화원의 존재 이유에 기여를 하고 있다. 주무 관련 부서인 문화예술공보과와는 일반 사업 이외에 4계절축제, 삶꽃문화사업 등 금산문화원의 핵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금산인삼축제의 경우 1980년 당초 문화원에서 개최하던 문화예술행사인 금산문화제를 금산인삼 선양을 목적으로 확대 개편 금산인삼제를 추진한 이후 문화원만이 아니라 법군민적 행사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으로 금산군이 주체가 되어 금산인삼선양위원회를 구성 주체가 되고 문화원에 축제집행위원회를 두어 인삼 관련 여러 단체와 소통을 한 결과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성공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4계절축제를 기획 축제의 고장으로 발전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사회복지과는 동아리 활동, 금산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금산군청소년지원센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금산군다문화지원센터의 경우 당초 문화원에서 삶꽃문화학교를 기획 결혼이주민을 상대로 언어 및 문화를 교육하다 이 사업이 모체가 되어 금산군다문화지원센터가 생기고 군에서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또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동아리 사업을 위탁을 받아 단체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각 학교를 찾아 상담을 하고 있는 청소년지원센터도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기획감사실과는 정보화 대상 마을을 상대로 협조를 하여 특성화 마을 조성에 일조를 하고 있으며 또한 금산농업기술센터와는 귀농인을 위한 마을 특성화 사업인 전통테마 마을 사업에 협조 이 또한 마을 이미지 창출에 일조를 하고 있다.

4) 문화원과 마을의 소통

금산문화원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사업인 삶꽃문화사업을 문화원 특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화원 각 회원과 단체의 발전을 넘어 이제는 지역 발전의 핵심 주체 중의 하나로 문화원이 자리하여야 한다는 것이 삶꽃문화사랑운동의 목적이다.

따라서 이 사업 주 대상이 마을 이미지 창출에 있으며 이러한 이미지 창출을 위하여 각 마을과 소통을 시도하였다. 단 순히 각 마을의 찾는 위문 공연식이어서는 안되고 공연 자체가 각 마을 주민을 위하고 주민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남아야 한다는 것이 당초 목적인데 지금 마을의 특성상 매우 어려운 사업임을 알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각 마을에 남아 있는 노래와 놀이를 중심으로 아리랑허튼놀이마당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있는 금년에는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이 마을작은축제를 통하여 각 단체의 소통이 새롭게 꿈꾸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사실 4계절축제도 이 작은마을축제에서 발전하여 금산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을 하였다.

5) 문화원과 외부지역 단체와 소통

금산을 벗어난 지역과의 소통도 매우 중요하다. 금산과 관련하여 금사모(금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와 미래촌이 있다. 금사모는 금산 출신이 아닌 사람들로 금산의 자연과 사람들에 이끌려 자발적으로 조직된 모임이다.

전국 특히 서울에 거주하며 학계, 경제계, 문화계에 관계하고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수시로 금산에서 모여 금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또 각종 행사가 있을 때면 모여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히 금산문화원이 펼치는 삶꽃문화사랑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론적으로 방향을 제시하여주고 있다. 미래촌은 금사모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모여 전국적으로 우리 사회 특히 농촌이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단체로 서울에 있다.

이러한 단체와 소통을 함으로써 문화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홍보에도 매우 유익하다.



안용산 금산문화원 사무국장, 시인

“문화원, 우리만 믿으랑게요”

기차역에서 내리니 포근하고 조용한 풍경에
긴 시간의 기차여행의 고단함이 싹 내려 앉는다.
평일 낮이기도 하지만 유난히 따뜻하고 조용한 느낌이다.
섬진강 상류인 순자강을 끼고 있는 곡성은 소위 부쩍 뜬(?) 동네이다.
구 곡성역사를 재현하여 증기 기관차와 레일바이크 등을 설치하고
장미공원도 꾸며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
곡성문화의 즐거움을 쫓아 문화원으로 발걸음을 옮겨본다.

전남곡성문화원



좌로부터 회원 정향숙 씨, 직원 후파다 가쁘꼬 씨, 배숙영 실장, 김학근 원장, 회원 성숙자 씨, 회원 박선자 씨, 조준원 사무국장이다. 문화원 취재 중에 회원과 문화원 직원들이 사진 찍는 것도 처음인데 그만큼 이들은 한 가족처럼 지낸다는 증거다.

회원의 정성으로 자라는 곡성문화원

문화원 사무국으로 들어서려니 복도에 전시되어 있는 전시물들이 눈길을 끈다. 오밀조밀하게 문화원 소식 등을 담은 작품도 있고, 문화원의 행사 등을 잘 정리해 스크랩되어 있다. 곳곳에 정성의 손길이 가득해 시선을 잡는다.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 걸 보니 곡성문화원의 숨은 손길이 궁금해진다. 사무국에서 직원보다 더 먼저 반갑게 인사해 주는 건 문화원 회원들이다. 사무국 한자리에 앉아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 곡성문화원의 열성회원 박선자, 성숙자, 정향숙 씨다. 한창 문화원 사업 아이টে에 관한 회의 중인 듯 하다. 박선자 씨는 곡성 여성연극단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성숙자 씨는 나이 65세에 이르러서야 전성기라고 말하는 곡성의 패션리더다. 이 때 기차마을에서 할 문화아이টে를 내놓는 정향숙 씨.

“우리 기차마을에서 막걸리 같은 거 체험하고 마시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인가가 있어야 하나?”

어디에 가든지 문화원에 관한 사업을 궁리하는 모습이 다. 함께여서 더 즐거운지 연신 까르르 큰 웃음이 터진다. 잠시 끼어들어 문화원에 관한 이야기를 여쭙었다. 여성연극단에서 활동하는 박선자 씨는 이번에 심청역을 맡은 문화원의 기린이다. 시작은 평범했지만 나름 인근에서는 소녀시대 부럽지 않은 인기를 몰고 다닌다

고. 얼마 전 전국순회 공연 당시 대구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공연을 보았던 아이들이 여성연극단을 다시 보기 위해 곡성으로 온 적도 있다 하니 그 인기를 실감할 만하다. 문화원 제 3의 숨은 일꾼들이요, 홍보꾼이다.

곡성문화원의 교육자, 김학근 원장

곡성문화원장 뿐 아니라 올해 1월에 전남도지회장 자리를 맡게 된 김학근 곡성문화원장은 평생을 교육계에 서 일하고 봉사했다. “중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을 했지요. 학교생활과 병행하여 70년대부터 우리문화 찾기 운동에 전념했어요. 우리의 자라는 우리 지역에서 찾자는 마음이었지요. 곡성 얘기를 하는 것이 제일 즐거웠어요. 항상 문화원 식구들에게 얘기해요. 제 삶도 그렇지만 문화원이 베푸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구요. 우리는 봉사자로서 즐거움을 찾자, 그것으로 보람을 느끼자,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문화원이 열악한 상황이라 봉사만을 강요하기에는 늘 마음이 쓰이는 건 사실이지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두 보람을 느끼며 즐겁게 일해 줘서 고마울 따름이지



김학근 곡성문화원장



곡성여성농민들이 직접 연출하고 연기하는
'마당극 심청전' 과 곡성다문화여성들의
'다문화 인형극 심청전' 등의 공연 등
주민과 함께 하는 어울림 체험 마당을 열고
문화원 알리기, 나아가 지역의 문화발전에
한 걸음을 보탬 예정이다.

곡성문화, 이들만 믿어도 될까? 묻고 빠르게 답한다.

물론 답은 '된다! 다.

우리는 앞선 그들에게 배우고

같이 나아갈 일만 남았다.





다문화인형극 창단 및 공연

요.” 김 원장은 운영은 사무국에서 되도록 전적으로 맡기고 있다고. 자율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창의력도 생기고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것 같다고 한다. 물론 대외적으로 나설 일이 있을 때는 발 벗고 뛰다면서 사무국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었다. 현재도 문화원 뿐 아니라 지역의 문화 활동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다는 김 원장이다. 요즘에는 단군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곡성문화원 들여다보기

곡성으로 가면 어딘가 어색한, 그렇지만 꼬집어 말할 수 없는 다른 분위기의 직원을 만날 수 있다. 바로 직원 후꾸다 가쁘고 씨다. 곡성문화원은 이미 전에도 다문화 여성을 직원으로 채용한 바 있다. 어떻게 보면 번거롭고 서로 불편하지만 다문화 사업의 일환으로 직접 고용 창출을 하는 셈이었다. 문화원 운영의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배려였다.

지역고유문화를 위해 문화유적체험, 우리고장 역사알기 등 여러 행사를 진행 중에 있고 제11회 효녀심청 유치부 사생대회, 제11회 효녀심청 전국어린이 예술공모전, 제13회 작가와의 만남, 제10회 심청축제 등 지역문

화행사의 개최도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으로 문화원의 자랑, 곡성여성연극단과 2010기차마을 상설문화공연, 섬진강 기차마을 연계 문화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사업 등 크고 작은 행사와 사업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도농교류 협력사업을 따내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곡성읍권 · 옥곡권 · 석곡권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농촌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농촌발전 인큐베이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진행된다. 곡성전통 문화단체들의 공연장을 마련해 곡성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 네트워크 형식으로 도시민들의 농촌 문화·농업 체험의 도농교류협력사업을 체험농가 중심으로 활성화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곡성여성농민들이 직접 연출하고 연기하는 ‘마당극 심청전’과 곡성다문화여성들의 ‘다문화 인형극 심청전’ 등의 공연 등 주민과 함께하는 어울림 체험 마당을 열고 문화원 알리기, 나아가 지역의 문화발전에 한 걸음을 보탬 예정이다. 곡성문화, 이들만 믿어도 될까? 묻고 빠르게 답한다. 물론 답은 ‘된다! 다. 우리는 앞선 그들에게 배우고 같이 나아가길 일단 남았다.

그의 노래를 들어라

함께 호흡하는 한국음악의 숨겨진 리더십 박과 장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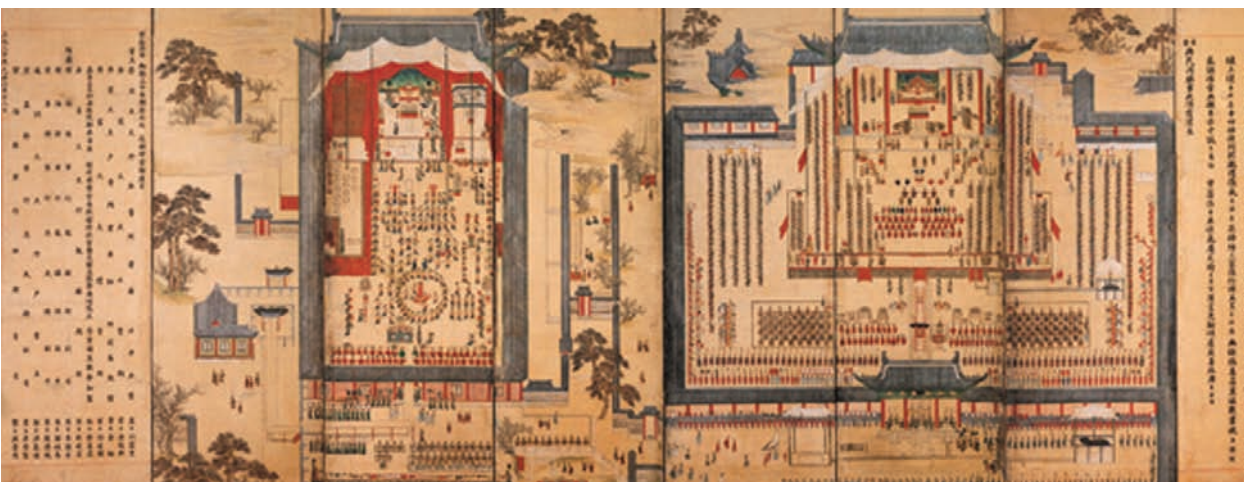
함께 호흡하는
한국음악의
숨겨진 리더십

박과 장구

1. 현행종묘제례악-국립국악원
2. 순조기축진찬도
3. 고려당초문장구
4. 박

1





2

호흡으로 우리음악 듣기

처음 우리 음악을 무대를 마주했을 때, 저 음악을 어떻게 들을까 좀 막막한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연주자들의 움직임이나 의상에 눈길을 주기도 하고, 악기의 생김새를 살피고, 프로그램의 해설을 참고하며 잘 들어보려고 애써보지만 여전히 낯선 느낌이 들 때...음악의 시작과 끝이 분간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특히 여러 사람이 모여 연주하고 노래하는 큰 합주 편성의 음악을 감상할 때, 지휘자의 움직임이라도 있으면 그를 따라 음악을 느껴볼 수 있으면 아무 기척 없이 '무념무상의 표정'으로 긴 음악을 연주하는 음악가들을 지켜보자면 좀 힘겹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할 것이다.

도대체 국악연주가들은 어떻게, 누구의 지휘에 따라 연주를 하는 것일까. 이런 저런 생각으로 복잡하다면 우선 숨결을 가다듬고 음악에 흐름에 몸을 맡기고 긴 숨을 쉬며 호흡을 같이 해 보는 것이 좋다. 들숨과 날숨을 음악의 흐름에 맞게 조절하다 보면 차츰 음악의 강세(強勢)에 익숙해지면서 음악에 빠져들 수 있다. 음악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함께 호흡 하다보면 마치 문장을 읽을 때 '띄어 읽기' 할 곳이 눈에 들어오듯 음악의 맥이 잡히는 즐거운 경험을 해 볼 수 있다.

'하나야- 두우울- 세에엿' 씩 느리게 흘러가는 음악, '하날 둘셋' 빠르게 흘러가는 음악들은 '셋' 이 두 개 모여 한 절을 이루고, '셋' 이 네 개가 모여 한절을 이루면서 크고 작은 선율의 단락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 흐름이 '숨 쉬듯' 편안하고 자연스럽다. 그 이유는 음악을 연주하는 이들이 박자를 헤아릴 때

메트로놈처럼 또박또박, 정확하게 짚어 내기보다 '호흡 주기'로 인식하며 연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음악이 심장박동을 닮은 맥박의 음악이 아니라, 폐부에서 우러나오는 '호흡의 음악'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음악의 빠르기를 말할 때도 '양식척(量息尺)'이라는 단위를 만들어 쓰기도 했다. 양식척이란 '숨을 헤아려 만든 재치'라는 말로 건강한 성인남자가 숨을 한번 쉴 때 맥박이 여섯 번 뛰는 것을 기준삼은 것이다. 이렇게 '호흡 수'에 근거하여 음악의 시간 단위를 측정하는 법이 고안될 정도였으니 '호흡하며 음악 감상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만하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음악을 특별히 이끌어가는 이가 없더라도 오랜 연습으로 서로의 '호흡'을 알아 합주하면 절로 음악이 어울리며, 듣는 이들도 호흡을 함께 하면 절로 동화(同化)되는 우리음악 감상의 주요 포인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궁중음악 합주 같은 큰 편성의 음악에서 지휘자처럼 앞에 나와 서 있는 분이 일일이 박자를



짚고, 음악의 흐름을 지시하지 않은 채 가만히 서 있다가 ‘시작’과 ‘끝’만 알리고 들어가는 연주 방법도 이해가 된다. “아하… 그런 거였구나.” 붉은색 옷(홍주의)을 입고 궁중음악을 연주하는 단원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앉아 연주 준비를 마치면, 일반 단원들과 다른 초록색 옷(녹삼)을 입고 뒤늦게 등장하여 음악이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기만 해도 어김없이 합주가 이루어지는 비밀이 ‘호흡’에 있다는 점은 한국음악에서의 ‘리더’ 역할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한다.

그렇다고 ‘박’이 전부는 아니다. 음악의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음악의 흐름에 맥을 이어가는 악기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이 바로 북과 장구다. 북과 장구가 함께 편성되는 음악에서 장단을 새로 시작할 때는 북과 장구를 동시에 치며, 장구잡이는 양손으로 장구의 양면을 치는 ‘합장단’을 친다. 장구의 합장단과 북과 장구를 동시에 치는 부분에 주목하면 음악의 구절, 즉 ‘악절(樂節)’을 알 수 있다.

북과 장구가 다 같이 편성되는 음악에서는 북이 큰 맥을 잡고, 장구는 작은 가락들을 만들어가며, 북을 쓰지 않는 작은 편성의 음악에서는 장구가 음악의 맥을 잡아 장단을 이끌어 간다.

한국음악의 합주의 두 리더 박과 장구

이제, 함께 호흡하며 연주하고 감상하는 한국음악에서 호흡과 흐름을 이끌어가며 음악의 완성을 리드하는 두 악기 박과 장구

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다.

박(拍)

박은 관현 합주와 궁중 정재, 제례악(祭禮樂) 등의 시작, 악구(樂句)의 종지(終止), 궁중정재의 장단과 춤사위의 전환을 알리기 위해 연주하는 타악기다. 여러 개의 나뭇조각을 부채살처럼 뿔다가 순간적으로 ‘딱’ 소리를 내며 접어 올리는 박 소리는 음악의 시종(始終)과 변화를 알리는 신호음으로 썩 잘 어울린다. 그리고 단단한 나뭇조각이 부딪치는 소리는 여음(餘音)이 전혀 없어 단호하고 엄정하게 들리는데, 음악과 함께 긴 생을 함께 한 원로 악사의 박 소리에는 침범하기 어려운 근엄함이 담겨 있다.

때로는 그 자리에서 일상적인 시간의 흐름을 끊고 새로운 음악의 세계를 여는 박 소리가 즐거운 충격과 의미심장한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도

있다. 박은 통일신라시대의 대악(大樂)에 박판(拍板)이 편성된 이후 조선전기의 향악(鄕樂)과 당악(唐樂)에 두루 사용되어 왔다. 「고려사」 「악지」와 「악학궤범」에는 당악기의 한가지로 소개되었고, 고려 예종 때에 송의 대성악(大晟樂)이 들어 올 때 박은 연향악(宴享樂)인 대성신악(大晟新樂)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세종실록」 「오례의」나 「악학궤범」만 해도 박은 향악과 당악, 「정대업(定大業)」, 「보태평(保太平)」과 같은 향(鄕) 「당(唐)」 아악(雅樂) 혼합편성에만 사용되었다.

그런데 「춘관통고(春官通考)」나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이후부터 아악에 박이 편성된 것을 보면 아악 연주에 박을 쓰기 시작한 것은 대개 조선 중기 이후의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박의 구조와 연주

박은 뽕나무, 박달나무, 화류 등 단단하고 빛깔이 좋은 나무를 골라 폭 7센티미터, 길이 40센티미터로 자른 판자쪽 여섯 매(枚)를 한데 묶어 만든다. 나무 쪽 판자의 윗부분 한 중간에 두 개의 구멍을 뚫고 나무 사이사이에는 엽전을 끼워 나무쪽끼리 서로 닿지 않게 한 다음 가죽을 땔아 만든 끈으로 묶는다. 박판(拍板) 사이에 끼우는 엽전은 박을 연주할 때 나무쪽이 부챗살처럼 잘 펴지고 접힐 수 있게 하는 역할도 한다. 한쪽 끝에는 오색 실로 매듭을 엮은 색실을 달아 장식한다.

박은 큰 것은 9판, 작은 것은 6판이다. 통일신라시대의 박판이 몇 매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려시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사용해 온 박은 6매로 된 박이다. 한편 음악 연주에 사용되는 박 외에 무구(舞具)로 사용되는 아박(牙拍)이 있다. 아박은 상아(象牙)나 다른 짐승의 뼈로 만든 것을 말하는데 손에 들고 춤을 출 수 있게 아주 작게 만든다. 궁중정재 아박무(牙拍舞)를 출 때의 무구로 사용된다.

박을 연주할 때는 약간 발을 벌린 자세로 편안하고 반듯하게 선 다음 오른손으로는 박의 중간 부분을 아래쪽에서 받쳐 올리듯이 잡고 왼손은 박의 위쪽 끝 부분쯤에 오게 잡는다. 연주를 할 때에는 왼손은 그대로 두고 오른손으로 맨 아래쪽의 박판을 잡아 부채처럼 폼다가 빠르고 힘차게 위쪽으로 올려 붙이면 '딱' 하는 소리가 난다. 고려가요나 조선 초기의 향·당악 악보를 보면 박은 다양한 음악의 장단형을 짚어주는데 중요하게 사

북과 장구가
다 같이 편성되는
음악에서는
북이 큰 맥을 잡고,
장구는 작은
가락들을 만들어가며,
북을 쓰지 않는
작은 편성의
음악에서는
장구가 음악의
맥을 잡아
장단을
이끌어 간다.

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보허자(步虛子)」, 「낙양춘(洛陽春)」 같은 당악이나 한문가사를 가진 당악 스타일의 향악곡에서는 대개 한문 가사 네 번째 글자, 즉 악절의 끝에 박을 한 번 쳤고, 우리말로 된 노래에서는 장구 한 장단, 즉 악절의 첫머리에 박을 한 번 쳤다.

현재는 제례악의 악작(樂作)과 악지(樂止), 그리고 모든 관현악의 시작과 끝에서 연주되는데 한 번 울리는 것은 시작을, 세 번 울리는 것은 종지를 뜻한다. 이밖에 제례악을 연주할 때에는 매 악구의 끝에서 한 번씩 올려주며, 궁중 정재에서는 장단이나 춤의 대형(隊形)이 바뀔 때 또는 춤사위의 변화를 지시할 때 한 번씩 친다.

관현악이나 제례악, 궁중 정재에서 박을 연주하는 이는 특별히 집박(執拍)이라고 한다. 집박은 보통 음악집단의 수장(首長)이 맡게 되며, 의상도 홍주의(紅周衣)에 복두(幘頭)를 갖춰 입는 여느 악사와 달리 녹색의 청삼(靑衫)에 모라복두(冒羅幘頭)를 쓴다.

연주를 할 때에는 집박은 연주원 앞쪽에 마련된 자리에 서서 연주의 시작과 끝을 지휘한다. 지휘라고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음악의 흐름을 일일이 지시하는 것은 아니고 부동(不動) 자세로서 음악의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집박의 의무다.

장구 (杖鼓?長鼓)

장구는 모래시계 모양의 나무통 양면에 가죽을 대서 만들어 '채(杖로) 치는 북(鼓)'이다. 보통 한자로 장고(杖鼓)라고 쓰며 발음은 장구라고 한다. 여인의

잘룩한 허리나 모래시계처럼 생긴 나무 공명통 양쪽에 가죽을 대고 양쪽의 복면을 끈으로 묶어 만드는데, 오른편의 채편은 대나무로 가늘게 깎은 장구채로, 왼편의 공편은 주로 손바닥으로 친다. 농악이나 굿 음악에서는 손바닥 대신 궁굴채로 쳐서 소리를 낸다. 장구는 허리가 잘룩하여 요고(腰鼓, waist-drum) 또는 세요고(細腰鼓)라고 불리던 고대의 장구형 타악기에서 변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고 종류의 악기는 인도에서부터 일본에 이르는 여러 아시아 국가에 분포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가 요고를 수용하여 연주에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56세기경의 역사 기록과 집안현 제17호고분벽화 및 통일신라 시대에 주조된 상원사(上院寺) 동종의 하곽(下廓) 문양, 연기군(蓮岐郡) 비암사(碑巖寺)의 계유명(癸酉銘) 아미타불삼존(阿彌陀佛三尊) 사면석상(四面石像) 등 여러 유적에서 요고의 모습을 볼 수 있고, 하남시의 고구려 유적지에서는 10세기 이전의 것으로 보이는 요고 유물이 발굴되기도 했다.

문헌상으로 '요고' 대신 요고 보다 울림통이 크고 채를 들고 연주하는 '장구'가 등장한 것은 고려시대부터이며, 궁중음악 합주에서부터 민간음악에 이르기까지 장구가 널리 쓰였다. 이런 전통은 조선시대로 이어져 문묘제례악 등의 아악연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음악에 편성되어 음악의 흐름을 주도했다.

장구의 구조는 크게 가죽으로 된 복면(복편·채편)과 나무로 된 공명통, 양쪽의 복면을 연결해 주는 조임줄 등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양편의 복면에는 모두 복판과 변죽이 있다. 공명통 둘레에 공명통보다 넓은 가죽을 대기 때문에 복면에는 공명통 안쪽에 닿는 부분과 바깥으로 나오는 부분이 생기는데, 복통 안의 것을 '복판'이라고 하고, 복통 밖의 것을 '변죽'이라고 한다. 공명통의 울림을 그대로 받는 복판에서는 크고 낮은 소리가 나고, 복통 밖의 '변죽'에서는 작고 높은 소리가 난다. 장구(杖鼓)는 사람들을 춤추게 하고 노래하게 하는데 그 어떤 악기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어디서건 장구 소리만 나면 춤추고 싶고 노래하고 싶고, 그도 아니면 구경이라도 하려고 사람들이 모여든다. 장구는 유교와 불교의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음악, 즉 궁중의례와 연향, 민간의 농악과 굿, 탈춤 등의 민속연희 등에 이르는 여러 종류의

그런가 하면

'우리동네 굿한다고

어떻게 장고 소래

구슬피 감겨들고'라는

무가의 사실처럼

이따금씩은

차량하게도 울렸으며,

농악패의 설장구

잡이 손 안에서는

가뭇에 내리는

희우(喜雨)의 소리가

이럴까 싶게

반가운 빗줄기 같은

장구가락을

시원하게 쏟아낸다.

음악에 편성되었다. 궁중의례와 음악 문화가 가장 융성했던 조선시대의 전정헌가에는 장구가 이십여 대나 동시에 편성된 적이 있었던가 하면, 민간에서는 장구 하나와 피리 하나로 조촐하게 굿판을 벌이기도 했고, 선소리패의 모가비는 장구를 들고 희떠운 소리판을 벌였으며, 삼패 기생들은 장구를 앞에 잡고 앉아 열두 잡가 '안진 소리(坐唱)를 불렀다.

장구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음악에서 '화(和)하고 장(壯)하며 절(節)이 있는' 소리를 낸다. 느린 관현악에서는 합장단보다 더 뽀뽀 있고 무게 있는 '기덕 쿵' 갈라치는 소리로 음악을 시작하고, 단잡이로 연주하는 풍류음악에서는 '나는 장고 생활 단소 우조 계면 각기 소장(所長)'이라는 관소리 사설에서처럼 음악의 기세를 가뿐하게 이끈다.

그런가 하면 '우리동네 굿한다고 어떻게 장고 소래 구슬피 감겨들고'라는 무가의 사실처럼 이따금씩은 차량하게도 울렸으며, 농악패의 설장구 잡이 손 안에서는 가뭇에 내리는 희우(喜雨)의 소리가 이럴까 싶게 반가운 빗줄기 같은 장구가락을 시원하게 쏟아낸다.

특히 열채와 궁굴채가 강하게 콘트라스트를 이루며 극적인 소리의 다이내믹을 풀어내는 농악의 장구 소리는 다른 어떤 악기도 넘보지 못하는 장구 고유의 영역으로 기억된다.

대나무에서 듣는 노래

— 대나무로 만든
우리나라 악기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여덟 가지 재료, 팔음

대나무는 사철 푸르고 곧게 자란다 하여 지조와 절개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다. 일찍이 선인들은 대나무를 벗 삼아 자연을 노래하고 풍류를 즐겼는데, 훈풍이 불어올 때마다 맑은 공기를 뿜어 내서 시원함과 상쾌함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는 대나무는 시각적으로도 장쾌하고 늠름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대나무는 오랜 세월동안 우리 조상들의 생활에서 많이 이용되어 왔는데, 아낙들이 곱게 머리 빗던 참빗, 물고기를 잡을 때 쓰던 대발, 상인들이 많이 착용했던 패랭이, 쌀을 이를 때 쓰던 조리, 죽순껍질을 이용한 죽피방석 등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이다. 우리의 전통 음악에서도 대나무는 없어서는 안 될 주요 재료로 대금, 소금, 단소, 통소, 피리 등의 대표적 선율악기를 만드는 재료가 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 악기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여덟 가지 재료에 의해 만들어져 왔는데, 이를 팔음(八音)이라고 하고, 이 중에 대나무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팔음의 재료는 금(金), 석(石), 사(絲), 죽(竹), 포(匏), 토(土), 혁(革), 목(木)이다. 금부(金部)에 속하는 악기는 편종, 특종, 방항, 징 등과 같이 쇠로 만들어진 악기이고, 석부(石部)에 속하는 악기는 편경, 특경과 같이 돌로 만들어진 악기들이다. 사부(絲部)에는 명주실을 이용하여 소리를 만들어내는 악기들이 속하는데, 거문고, 가야금, 아쟁, 비파 등의 현악기에 이에 속하고, 죽부(竹部)에는 피

리, 대금, 당적, 단소 등 대나무를 재료로 만든 악기들이 포함되어 있다. 포부(匏部)는 생황과 같이 바가지라는 재료를 이용하여 악기의 중심부를 만드는 악기가 속하며, 토부(土部)는 훈이나 부와 같이 흙을 잘 다듬어 구워서 악기를 만들 때 이 부류에 속하게 된다. 혁부(革部)는 장구, 갈고, 좌고, 절고, 소고와 같이 소리를 내는 부분이 동물의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의 악기들을 묶어서 분류할 때 쓰이고, 목부(木部)는 박, 축, 어 등 나무를 중심재료로 악기를 만들어 소리를 낼 경우 이 부류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악기들 중에 자연의 소리를 가장 많이 담아내고 있는 대나무로 만든 악기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풍지가 떨리듯 떨리면서 장쾌한 소리, 대금

대금은 신라시대에는 중금, 소금과 더불어 삼죽(三竹)이라 하여 신라의 음악을 대표할 수 있는 악기로 꼽혔으며, 『삼국사기』에는 신라의 대금곡이 324곡에 이른다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사랑받아왔던 악기이다. 현재에는 중금은 전해지지 않고, 대금과 소금만이 전해지고 있다. 대금은 대나무 중 횡죽을 사용하여 만들기도 하지만, 살이 두껍고 단단한 쌍골죽(雙骨竹)을 제일로 친다. 일반적으로 6개의 지공을 뚫어 음의 고저를 연주했으며 가로로 길게 잡고 목을 옆으로 돌려 취구에 바람을 넣어 연주한다. 대금의 가장 큰 매력은 청공(淸孔)이

다. 청공은 얇은 갈대 속청을 떼어내어 청공위에 붙여서 취구에 바람을 넣으면 청공에 붙인 갈대청이 풍지가 떨어듯 떨어면서 아주 장쾌하고, 독특한 음색을 만들어내는 부분을 일컫는데, 대금의 음색을 가장 대금답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대금은 전통음악의 거의 대부분의 악곡에서 빠지지 않고 사용된다. 정악곡인 영산회상, 보허자, 낙양춘 등은 물론이고 산조나 시나위, 민요반주 등의 음악에도 주선율을 연주하는 중심적인 악기로 사용되는데, 정악곡에 연주되는 경우는 정악대금을 사용하고, 그 외의 음악에는 약간 크기가 작은 산조대금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성난 파도를 잠재웠다는 만파식적의 전설과 함께 우리의 심금을 크게 울려주는 대금 소리는 청공의 떨림과 함께 가장 한국적이며 깊이 있는 소리로 소개되고 있다.

곱고 높은 음정의 소금

대금보다 훨씬 작아서 곱고, 높은 음정의 소리로 국악기 중 가장 예쁜 소리를 만들어 내는 악기로 꼽히고 있는 소금도 대나무로 만들어진 우리의 고유 악기중 하나이다. 신라시대 삼죽(三竹)의 하나라 오랜 세월 한반도의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온 소금은 서양음악의 피콜로에 비유될 정도로 높은 음역을 담당하고 있는 악기이다. 바람을 불어넣는 취구 1개와 손가락을 짚어 음을 내는 지공 7개 등 모두 8개의 구멍을 갖고 있는 가로로 부는 관악기이다. 소리가 높고 맑아 현대인의 감성에 맞아 떨어지는 퓨전 국악곡에서 진가를 발휘하며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관악기이다.

청아한 소리의 단소

소금보다 약간 더 가늘지만 길이는 소금보다 조금 더 긴 대나무로 만든 악기로는 단소가 있다. 대금과 소금은 대나무를 가로로 들고 부는 반면 단소는 세로로 단소를 잡고 소리를 만들어 내는 악기이다. 단소는 음빛깔이 청아하여 독주 악기로 많이 애용되고, 풍류방에서 다른 악기와 같이 현악 영산회상을 연주하거나 가곡, 가사, 시조를 반주하는데 쓰여 왔다. 합주뿐만 아니라 생황이나 양금, 또는 가야금, 거문고와 함께 병주(竝奏)의 구성으로 연주되기도 하는데, 특히 생황과 단소의 이중주인 생소병주는 가장 조화롭게 어울리는 두 개의 악기소리로

대나무는
사철 푸르고
곧게 자란다
하여 지조와 절개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다.
일찍이 선인들은
대나무를 벗 삼아
자연을 노래하고
풍류를 즐겼는데,
훈풍이 불어올
때마다 맑은 공기를
뿜어내서
시원함과 상쾌함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는
대나무는
시각적으로도
장쾌하고 늠름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꼽히기도 하여, 몇 해 전 인기를 얻은 '취화선'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 장승업과 여주인공인 기생 매향의 사랑과 육체적 합일을 절묘하게 묘사하는 것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단소의 지공은 뒤에 하나, 앞에 네 개가 있으나 제일 아랫 구멍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단소가 언제부터 우리 조상들과 함께한 악기였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통소의 작은형으로 조선조 말기에 속하는 악기라는 학설이 가장 유력하다.

투박하고 거친 음색의 힘, 통소

통소는 단소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으나 단소보다는 훨씬 커서 길이가 70cm 정도에 이른다. 그러므로 단소의 청아하고 맑은 소리와는 대비되는 조금은 더 굵고 뻗뻗한 소리가 만들어지는 악기이다. 오늘날의 통소는 많이 연주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통





소를 연주할 수 있는 연주자의 수가 지극히 적어서 그 전통의 맥이 끊어질 위기에 있는 악기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통소의 음색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악은 북청사자놀이이라는 탈놀음을 연행할 때 연주되는 음악이다.

함경북도 북청 지방에서 정월대보름에 행해지던 놀음이 1950년 한국전쟁 뒤 월남한 연희자들에 의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고, 이것이 바로 투박하지만 한국적인 대나무의 거친 음색을 담고 있는 통소 연주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전통 행사인 것이다. 이상의 대금, 소금, 단소, 통소의 공통적인 특징은 대나무로 만들어진 악기라는 것과 동시에 U자 모양으로 파인 취구에 바람을 넣어 소리를 만들어 냄으로써 소리내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주법에 있어 소리내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이다.

예쁘고 서정적인 피리

단소보다 더욱 작은 크기의 관악기인 피리도 역시 대나무를 재료로 만들고 있지만, 대나무 관에 서양의 오보에와 같이 서(혀)를 꽂아서 서를 입에 물고 바람을 넣어 연주하는 점은 구조적으로 위의 네 악기와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전통 피리에는 향피리, 당피리, 세피리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향피리는 크고 활달한 음색으로 전통음악에서 대부분의 주선율을 담당하고, 산조용 악기로도 사용되며 시나위나 민요의 반주에도 사용된다.

당피리는 다른 두 피리보다 소리가 크고 굵어 큰 관현악 편성의 곡에 주로 사용되는데, 종묘제례악, 문묘제례악 등 제례악의 연주에도 쓰여 왔다. 세피리는 관이 가늘어서 음량이 작고,

세 가지 피리 소리 중 가장 예쁘고 서정적인 소리를 만들어 낸다. 그러므로 소규모 편성의 악곡이나 현대에 만들어진 퓨전 국악곡들의 연주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풀피리 소리와 가장 비슷한 소리도 세피리가 만들어 낸다.

우리 대나무 소리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전통 악기 중 대나무를 재료로 사용한 악기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외에도 오늘날 많이 연주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와 적, 약과 같은 악기도 모두 대나무를 재료로 만들어진 전통악기이다. 같은 재료를 사용하는데도 그 길이와 굵기, 가로로 연주하는지, 세로로 연주하는지, 지공의 수, 청공이나 칠성공 등의 유무, 서를 끼어서 연주하는지에 따라 각각의 악기의 음색과 표현법, 특색이 모두 제각각이며 그 악기들이 사용된 음악도 확연히 구별되는 점은 우리 조상들의 놀라운 손재주와 기지(奇知)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더운 여름 맑은 향기나는 흙속으로 질기디 질긴 희망의 뿌리 뻗는 실직한 대뿌리처럼 시원한 음색을 뿜어내는 우리의 대나무 소리로 더위를 잊어봄은 어떨지 추천하고 싶다.



변계원 한국과학기술원 대우교수

홍대의 인디밴드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이미지들이 있다.

상상해보시라.

몇 가지 상상에 이런 상상은 이제 필수다.

한 여자가 있고 그 여자가 앉아서 가야금을 켜다.

추석 때 텔레비전에서나 보았을 법한 풍경이다.

그 여자는 앉아서 가야금을 켜며 노래한다.

그녀의 잔상은 오래도록 남는다.

그녀를 알고부터는 홍대 인디밴드에 대한 이미지가

온전히 하나 늘었다.

가야금으로 소리의 물결을 이루다

가야금연주자 정민아



벌써 조금 오래된 이야기다. 홍대에 가야금을 켜는 여자에 대한 소식은. 어쩌다 가야금을 켜게 되었다. 더욱이 홍대에서 유명하다. 시작이 궁금하다.

초등학교 때 한국무용을 했다. 그 때 연습용 가야금이 있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했던 건 중2 때이다. 동네에 가야금 교습소가 있는 걸 보고 부모님을 졸라 다니게 되었다. 피아노는 생각해 보면 참 지겹게 배웠는데 가야금을 배울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다. 재밌고 정말 좋았다. 그래서 진학은 국악고등학교로 가기로 결심한 거다. 국악고에 가려면 성적이 일정 정도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열심히 했다. 목표가 있으니까 공부도 재미있어지고 결과도 좋았다.

그렇게 가야금을 전공해 음대를 졸업하고 관현악단 시험을 응시했는데 잘 안 됐다. 워낙 길이 좁고 응시자는 많고 그나마도 자리가 잘 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학습지 알바도 하고 여러 파트타임도 했다. 제일 많이 한 건 텔레마케터였다. 그러다가 공연장에서 카운터 알바를 한 것이 내 연주를 할 수 있는 길이 되

었다. 알바를 하면서 그곳을 연습실로 쓸 수 있었다. 어느 날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들으시고는 굉장히 감탄을 하셨다. 가야금을 듣는 일도 처음일뿐더러 느낌이 좋으셨던 모양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정식으로 연주를 하게 되고, 점점 공연의 장소와 횟수가 늘어가게 되었다.

가야금도 가야금이지만 베이스와 가야금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 가사도 잘 어우러진다. 영향을 받거나 평소 좋아하는 노래는 뭔가.

베이스리스트 서영도 씨와는 잔상 하나만 녹음하기로 했었다. 녹음 끝나고 남는 시간에 그냥 즉흥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 그게 느낌이 너무 좋았다. 가야금





하고 베이스가 굉장히 잘 어울렸다. 그렇게 연주된 즉흥은 ‘정민아_즉흥, 2009년 11월 30일’ 이란 제목으로 음반에 실었다. 가야금하고 베이스하고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은 몰랐다. 워낙 서영도 씨가 훌륭한 연주자이셔서 또 쉽게 진행이 되었던 것도 있다. 가야금은 구조적으로 하프와 잘 맞는다. 내가 쓰는 건 25현 개량가야금인데 음역이 넓어서 다른 악기 없이도 충분히 소리를 만들어낸다. 가사의 경우에는 은유적으로 표현하려고 한다.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말하는 건 싫다. 가야금하고도 안 어울리고.

가장 좋다, 제일 인상 깊다, 그런 음악은 없다. 다 좋다. (웃음) 몇 가지 얘기해보자면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이나 피아줄라는 참 좋다.

전국투어(?)를 했다고 들었다.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된 건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2009년 8월, 15일 동안 9명이 떠난 여행이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으샤 가자, 그랬던 게 독립영화를 찍는 분의 성화로 의외로 쉽게 가게 되었다. 길을 가다가 평상 위에 계신 할머니들, 할아버님께 ‘여기서 연주 좀 해도 될까요’ 하는 것이 공연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나무 아래 평상에서 노래를 했다. 하루는 대학가의 놀이터에서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시끄러워서 민원을 넣으러 나오신 적이 있다. 나를 보고서 오히려 팬이라고, 과자랑 책을 사서 주셨다. 알고 보니 내 음반까지 갖고 계신 분이였다. 이런 하나하나의 인연이 참 소중한 시간들

이었다. 다시 가라면, 안 갈 거 같다. (웃음) 가야금을 들고 다니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 힘든 것만 빼면 정말 너무 좋았다. 그래도 작년 여름은 답지 않아서 바다에 가셔도 춥고 그랬던 기억이 있다.

정민아, 하면 가야금이 당연히 생각난다. 앞으로 어떤 음악을 할 건가.

지금까지 지내면서 꼭 어떤 음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가야금은 전통적인 소리를 내는 악기다. 그 소리가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형태로 변질되지 않게 작업하려고 한다. 가장 자연스럽게. 가야금이 없었다면 나는 그냥 홍대의 노래하는 여자에였을 거다.

그만큼 가야금이 제 정체성을 대변해 주기도 한다. 작곡을 공부하면서 가야금 없는 정민아에 대해서도 생각해본다. 처음에 곡 쓰고 가사 쓸 때는 오히려 쉬웠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렵다. 앞으로 가야금 다음의 정민아가 아니라 정민아 다음 가야금이 위치하는 음악인이 되고 싶다.



책 수집가 안정웅의 오거지서(五車之書)

작은 책 큰 지식 우리나라

책 수집가

안정웅의

오거지서(五車之書)

Book

문고본(文庫本) 이야기

작은 책 큰 지식
우리나라



1970~80년대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포켓주머니 속에 꼭 들어가는 문고본(文庫本)에 관한 추억쯤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 시기에 나온 문고본은 을유문고, 서문문고, 삼중당 문고, 박영문고, 정음문고, 삼성문화문고, 춘추문고, 탐구신서, 중앙신서 등 문고본의 전성기였는데 수준이나 깊이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최고의 교양서였다. 그 당시 책 수집을 하는 나도 문고본을 하나둘씩 사다보니 어느덧 쌓여 책장에 꽂다보면 책의 크기가 작은 문고본은 문고본끼리 모여 아담한 책 풍경을 연출하곤 했다.

특히 겉표지가 노란 삼성문화재단에서 발간한 삼성문화문고는 1권부터 100권까지 한꺼번에 구입하여 꽂아 놓은 기억이 난다.

공룡같이 기괴한 삼중당 문고
우주같이 신비로운 삼중당 문고
그러나 나 죽으면
시커먼 배때기 속에 든 바람 모두 빠져 나가고
줄어드는 풍선같이 작아져
삼중당 문고만한 관속에 들어가
붉은 흙 뒤집어쓰고 평안한 무덤이 되겠지"

이처럼 삼중당 문고는 한 시대를 풍미할 정도로 유명했던 문고 시리즈였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국민들의 독서율이 높고 출판문화가 번성한 나라의 서점에 가보면 오히려 책의 생김새가 단순하고 맛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애장판으로 나오는 양장본 도서 말고는 종이 하나로 싼 표지에 종이도 까끌까끌한 중질지나 재생지를 주



중학생시절부터 죽어라고 삼중당 문고를 읽은 지금의 장정일 작가는 그의 문학적 수업과 글쓰기의 모태가 된 삼중당 문고에 대해 시를 통해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열다섯 살 하면
금세 떠오르는 삼중당 문고
150원 했던 삼중당 문고
수업시간에 선생님 몰래
두터운 교과서 사이에 끼워 읽었던
삼중당 문고
특히 수학시간 마다 꺼내 읽은
아슬아슬한 삼중당 문고
이하 종략

로 사용하는데 이런 장정의 책을 문고본(페이퍼백)이라고 부르는데 저렴한 가격, 휴대하기 편리한 크기로 독자들에게 지식과 감동을 전하는 책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데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문고본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장정·관형 등을 일정하게 하여 특징의 주제 밑에 제한된 책수(冊數)로 완결하는 계획된 출판물로 전집·총서 등과 비슷하게 쓰이는 말이다.

다른 하나는 총서의 성격을 띠기는 하나 종기(終期)를 정하지 않고 특히 엽가 보급을 목적으로 하여 고전작품이나 기간(既刊)의 저작을 후대에 편리한 소형의 형태로 파내는 일군의 출판물을 말한다.

이런 문고본의 효시는 1841년 독일의 타우흐니츠 문

고다. 이 문고는 100년간 5,290종을 펴냈다. 이 문고는 1867년에 나온 레클람 문고와 더불어 독일인의 지적·문화적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레클람 문고는 1·2차 세계대전 당시 참호속의 병사들조차 애독한 것으로 유명하다.

1954년까지 모두 7,500종 2억7500만부를 펴냈다. 미국에서는 1860년 남북전쟁 직전에 에러스터스비들 문고가 나왔다.

이 문고 역시 병사들의 진중문고로 읽히면서 당시 미국의 출판시장을 5~6배 신장시켰다. 문고본은 대개가 무면지이며 크기는 국판(152×218mm)의 절반인 국반판(106×148mm)이다.

영국의 펭귄북스, 프랑스의 크세즈, 독일의 레클람 문고, 미국의 포켓북스, 일본의 아와나미 문고 등은 지금도 꾸준히 출간되고 있는 대표적인 문고본 시리즈다. 우리나라에도 도포자락에 들어가는 크기의 수진본이라는 작은 책자가 있었다.

개화기 이후의 문고의 효시는 육당 최남선이 운영하는 신문관에서 1909년 발행한 십전총서와 1913년에 나온 육전소설을 들 수 있다.

그 후에 1938년 학예사에서 발간한 조선문고와 1939년

에는 박문문고가 나와 문고의 명맥을 이어갔다. 이 중에서 영국의 펭귄문고는 현대적인 의미에서 문고본의 대명사가 되었다.

“훌륭한 작가와 훌륭한 디자인 그리고 훌륭한 내용 이 모든 것을 단 6펜스에 드립니다.”

라는 지금으로부터 75년 전인 1935년 7월30일 영국의 한 출판사 편집장이었던 알렌레이니 펭귄북스를 세상에 선보이면서 사용한 선전 문구다.

펭귄북스는 기존 문고본이 싸구려 통속소설을 담아내던 것을 벗어나 클래식 반열에 오른 혹은 오를 책들로 시리즈를 구성하여 문고본의 새로운 시대를 연 것이다. 이후 “담배 값으로 책 한권을”이란 슬로건 아래 오늘날 펄리컨북·피콕 등 꼬마 펭귄문고를 거느린 세계최대의 문고 시리즈로 성장했다.

실질적인 국내 문고본의 역사를 연 것은 1939년이다. 학예사의 조선문고와 박문서관의 박문문고가 거의 동시에 문고본의 깃발을 들어 올렸고 이후 광한서림의 현대문고가 문고본 경쟁에 뛰어 들었다.

신문관의 육전소설이 단명하고 만 이후 거의 한세대가 지날 무렵이었다. 식민지라는 사회적 조건은 변함이 없었지만 이제야 그 이름에 걸맞은 본격적인 문고



BOOK

본이 출현한 것이다.

초창기의 3대 문고본 중 선두주자는 단연 학예사의 조선문고였다. 보고 싶은 고전은 비장서, 희귀본으로 표지조차 대하기 어렵고 현대문학이라든가 외국서적 같은 것은 부질없이 외관이나 중시하고 혹은 지나치게 영리에 치우쳐 가격이 비싸 쉽게 가까이 할 길이 없는 당시 조선 출판계의 현실을 개탄하며 나온 조선문고는 동서고금의 학술, 예술, 철학, 과학 등 전반의 도서 중 고전으로서 혹은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을 엄선하여 후대에 편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구독에 편하도록 하여 서책의 대중화를 꾀했다.

1939년 1월 〈원본준향전〉을 첫 권으로 펴낸 조선문고는 1941년 2월 〈이태준단편집〉을 마지막으로 총 20종을 발간하고 중단하고 말았다.

다. 문고 간행은 총 4개 부문으로 나누어 1부는 학술 2부는 농민계몽 3부는 고전 4부는 민중예술로 매월 1책씩 계속 간행하는 것으로 했다. 문단에서 주로 좌익 성향의 작가들의 작품이 많이 간행되었다.

1948년 을유문화사가 창립 2돌을 맞아 국민대중의 계몽과 지식 향상을 위해 을유문고를 펴냈다. 150쪽 안팎의 분량에 가격이 200원 내외였던 을유문고는 6.25 전쟁으로 중단됐다가 1969년 정치, 법률, 사회, 경제, 철학, 역사, 예술, 과학 분야 등 학문의 모든 영역을 망라한 새을유문고를 시작하고 그 첫 번째로 문일평의 〈한국의 문화〉를 간행하였다.

지금까지 계속 속간되고 있으며 그중 〈명심보감신석〉 〈논어〉 〈노자도덕경〉 〈사회심리학〉 〈생활의 발견〉 등이 인기를 끌었다.

이런 시기에도 **지식에 대한 갈망과 욕구**는 끊임없이 분출하였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1954년 진문사가 **신세계 문고를 발간**했다. 간행의 변을 보면 “신세계 문고라 일컫는 일련의 소책자를 계속적으로 발간하여서 독서자의 회구하는 바의 양식을 단편적이거나 제공하려 드는 것이다.” 라고 했다.

비록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말았지만 조선문고가 끼친 영향은 적지 않았다. 지면의 제약을 긍정하면서도 명저와 명편을 엄선하여 고전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정보주의를 지향한 것이다.

식민지 시대가 끝나고 해방이후의 문고본으로는 협동문고, 을유문고, 정음문고 등이 발간되었다. 협동문고는 조선금융조합연합회에서 1946년부터 간행한 것으로 “아무리 서고에 충적된 좋은 서책일지라도 그 대로 개방만 해준다고 그것이 지식수준이 얇은 대중을 즐겁게 해주지 못하고 그들 대중에게 곧 양식이 되고 피와 살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학문과 예술의 보편화를 꾀하는 데는 먼저 서책의 대중화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라고 간행사에서 밝혔

1950년 동족 간에 벌어진 6.25 전쟁은 엄청난 인명 피해는 물론 온 국토가 파괴되고 경제, 사회가 완전히 폐쇄되었다. 복구는 엄두도 못 내고 먹고 살기에도 고단한 시절이었다.

이런 시기에도 지식에 대한 갈망과 욕구는 끊임없이 분출하였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1954년 진문사가 신세계 문고를 발간했다. 간행의 변을 보면 “신세계 문고라 일컫는 일련의 소책자를 계속적으로 발간하여서 독서자의 회구하는 바의 양식을 단편적이거나 제공하려 드는 것이다.” 라고 했다.

1959년에는 도서출판 양문사가 문고본 양문문고를 발간하기 시작했다. 그 목적은 민족적 불행이 초래한 문화적 폐해를 일소하여 문화건설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첫 번째 책으로 고려대 신일철 교수가 번역한 몰턴화이트의 <20세기철학>이었는데 145쪽 300환이었다.

60년대에는 1960년 4.19 직후 사상계사에서 펴낸 크기가 불과 손바닥만 한 사상문고 시리즈가 주목을 받았다. 그 내용은 주로 사상과 이념에 관한 서양고전의 번역물이었다. 사상문고가 성공을 거두면서 60년대와 70년대에 많은 종류의 문고본이 쏟아져 나오면서 문고본의 전성기를 맞았다.

문고본이 인기를 끈 이유는 1970년대 대학의 대중화와 함께 전례 없이 독서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고본의 인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표기법이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로 바뀌고 한자와 혼

용하던 어문정책이 한글전용으로 서서히 바뀐 데다 인쇄형태가 전산화 되면서 출판계는 대대적인 변화를 겪어야 했다.

여기에다 1980년대 경제적 안정기가 찾아오면서 독자들은 크고 호화로운 칼라판을 선호하면서 시장에서 문고본은 자연스럽게 자취를 감추었다. 출판사와 서점도 이익률이 높은 호화 양장본을 선호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저작권에 대한 법령이 제정된 이후로 새로운 텍스트를 발굴해서 문고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출판사들에게 크게 부담감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이 새로운 텍스트의 생산 없이 문고본을 계속 출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데다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였는데도 염가로 판매를 해야 한

Book

그러나 **문고본 부흥이 지속되려면** 시리즈 소속 도서의 품질을 관리하는 출판사의 노력이 절대적이다. 각별한 의욕과 뜻을 가지고 출판한 문고본 시리즈가 그 출간 총수가 늘어나면서 일종의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도 **정신문화를 끌어가는 주요매체를 문고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는 것은 채산성을 맞추기에 여러모로 어렵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침체기에 빠졌던 문고본도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서서히 부활의 날갯짓이 시작됐다. 출판계에서는 문고본 시리즈의 르네상스를 조심스럽게 점치기도 했다.

이런 부흥의 중심에는 책세상 출판사의 책세상 우리 문고가 있었다. 구태의연한 도서구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젊은 학자 및 전문가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95년부터 출판하기 시작한 시공사의 시공디스커버리 총서는 프랑스 갈리마르 출판사의 발견총서를 번역소개 하는 차원이지만 읽는 책에서 보는 책으로의 전환이라는 추세를 잘 반영하였으며 문학과지성사가 96년 말부터 내놓고 있는 문지스펙트럼시리즈도 각별한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김영사에서 출간한 하룻밤의 지식여행은 토론티크스에서 출간한 책을 번역 소개하는 시리즈로 리더에서 유저로의 전환이라는 추세를 반영했으며 도서출판 창해의 ABC북시리즈는 백과사전의 각 항목을 짧은 문고 단행본으로 담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밖에 1년만에 100권이 넘게 출간한 살림출판사의 살림지식총서 이제이북스의 아이콘시리즈등도 문고본의 부흥을 주도했다. 다시 문고본의 중흥기를 맞은 것이다.

그러나 문고본 부흥이 지속되려면 시리즈 소속 도서의 품질을 관리하는 출판사의 노력이 절대적이다. 각별한 의욕과 뜻을 가지고 출판한 문고본 시리즈가 그 출간 총수가 늘어나면서 일종의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도 정신문화를

끌어가는 주요매체를 문고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고본은 그 나라의 지성을 키우고 이끌어가는 문화의 보고이자 또한 가장 대표적인 문화수출품 중의 하나이다.

문고본을 칭하는 수식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작다, 가볍다, 짧다, 굵다, 빠르다, 싸다, 부담 없다, 귀엽다, 심플하다 이런 것들이 문고본이 좋은 이유다.

이런 문고본의 열풍이 불어야 저비용 고효율의 지식정보습득 수단으로서의 문고본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고 전반적인 독서문화 수준도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참에 우리 모두 가방 속에 문고본 1권을 넣고 다니면서 때와 장소 구분 없이 부담 없이 꺼내 읽을 수 있는 여유를 한번 부러보는 것은 어떨까.



안정웅 성결대학교 객원교수

산양아 북극곰아 잘 지내니?

황운 영화감독의
산양, 북극곰 안부기

지난 겨울의 산양

산양. 평생을 두고 조금씩 자라는 두 개의 작은 뿔과 잿빛 털을 가졌으며 가파른 절벽도 가볍게 뛰어넘는 멋진 동물.

불과 수십 년 전까지 한반도 곳곳에 많은 수가 살았으나 급격한 서식지 파괴와 밀렵으로 이제는 설악산과 경북 울진 등 전국에 겨우 수백 마리가 어렵게 생존하고 있는 멸종위기 1급의 야생동물입니다.

이 귀하디 귀한 산양 수십 마리가 지난 겨울 연이어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야생동물수의사인 저의 남편은 겨울 내내 끊이지 않고 들어오는 산양의 사체를 부검해야 했습니다. 죽은 산양들은 정상 체중의 삼분의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바싹 말라 있었고, 그들의 위장은 평소에는 먹지 않는 솔잎, 갈잎, 관목류 줄기 따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산양들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뎃도 아니고 올무도 아니었습니다.

굶주림이었습니다. 봄이 와야 하는 데도 폭설이 계속되자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은 것입니다. 발견된 개



체만 30마리가 넘으니 실제로 굶어 죽은 야생 산양의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생존하고 있는 전체 산양의 몇 퍼센트가 이번 겨울에 굶어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 매해 이런 정도로 희생된다면 산양의 멸종은 시간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눈을 좋아하는데도 지난 겨울처럼 눈이 지겨웠던 적도 없었습니다. 4월, 벚꽃이 필 무렵까지 눈이 왔었지요. 유난히 길었던 겨울이 가고 드디어 봄이 왔구나 싶었는데 어느새 여름입니다. 아직 6월초인데 대낮의 불볕더위는 한여름 같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는 건 잘 알고 있었지만 계절이 뒤죽박죽되는 걸 보고 있자니 이리다 정말 한반도에 봄, 가을이 없어지고 여름, 겨울만 남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여름, 겨울만 남으면 에어컨, 보일러, 난로 회사는 호황을 누리겠지만 생태계는 사망 직전 인공호흡기를 끼야 할 지경에 이르겠지요.

꽃과 나무, 곡식은 개화시기를 놓쳐 수정을 못하고,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 뱀, 도마뱀들은 봄인 줄 알고 나왔다가 갑자기 내린 눈 속에 얼어 죽게 되며, 새싹과 벌레를 기다리던 많은 야생동물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됩니다. 지난겨울 산양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연의 경고

화석연료를 많이 쓴 산업 국가의 사람들이 일으킨 지구온난화의 피해를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받는 존재는 화석연

발견된 개체만 30마리가 넘으니 실제로 굶어 죽은 야생 산양의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생존하고 있는 전체 산양의 몇 퍼센트가 이번 겨울에 굶어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 매해 이런 정도로 희생된다면 산양의 멸종은 시간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료라고는 거의 쓰지도 않고 자연의 순리 안에서 순박하게 살아온 저개발국가의 부족들, 그리고 죄 없는 동물과 식물들입니다. 끝도 없는 북극의 망망대해를 헤엄쳐 가는 북극곰의 모습이 담긴 어느 자연다큐멘터리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는 분이 꽤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몇 해 전 이 장면을 보고 가슴이 서늘해졌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녹지 않던 북극의 빙하가 지구온난화로 속수무책으로 녹아 내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진 북극곰이 몇 날 며칠을 쉬지 않고 헤엄쳐 가도 발 딛고 설 빙하가 나타나지 않아, 지치고 굶주려 서서히 바다에 가라앉고 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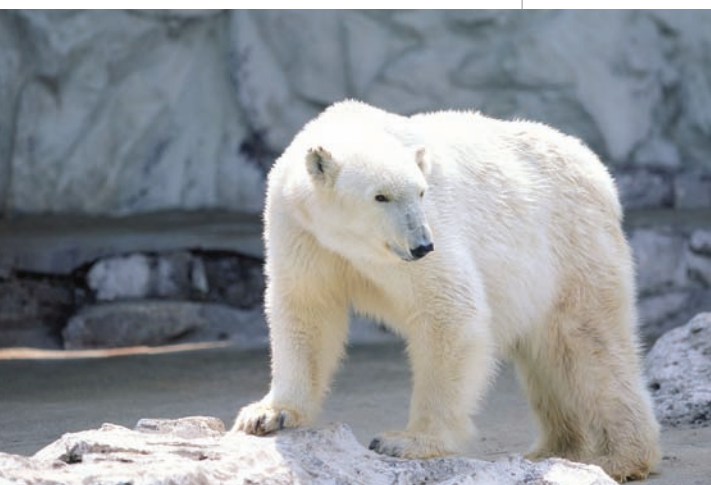
북극곰들이 익사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많이 알려진 사실이 되었지만 그들을 위해 자동차와 에어컨 대신 대중교통과 선풍기를 선택하는 사람은 여전히 많지 않습니다.

만약 동물과 식물들이 사람처럼 소송을 걸 수 있다면,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심판할 수 있는 자연계의 심판관이 있다면, 인간은 지구를 파괴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도 모자라 거대한 금액의 피해 보상을 한 후 우주의 어느 삭막한 별로 추방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지요. 2003년 여름, 유럽에서 3만 500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더위. 역사상 유례가 없는 폭염이 유럽을 덮친 것입니다. '카트리나'를 기억하

시겠지요. 2005년 미국 뉴올리언즈를 전쟁터처럼 초토화시켰던 초강력 허리케인. 이 또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특급 허리케인이었고, 이로 인해 1800명이 죽고, 무려 80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고 이재민이 되었습니다. 카트리나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더 강력한 허리케인의 전주곡에 불과하다는 과학자들의 예측 때문입니다.

카트리나보다 더 강한 허리케인이란



어떤 것일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런 강도의 태풍이 한반도에 들어 닥치면, 아마 남아나는 아파트와 건축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에서는 2007년 전국적으로 3000여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그리스 전체 면적의 50%가 불탔습니다. 산불을 키운 것은 오래 지속되는 건조하고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자연은 이토록 분명하게 위기를 알리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물질의 편리함에 길들여진 사람들의 습관과 욕심은 줄어들 줄을 모릅니다.



멧토끼, 고라니, 너구리, 삥(살쥔), 하늘다람쥐, 수달이름만 불러도 사랑스러운 우리 땅 야생동물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는 저는 주로 야생동물의 이야기를 영화에 담아 왔습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인간과 야생동물의 관계가 저의 오래된 화두입니다.

제가 이런 주제로 작품을 만들게 된 것은 2001년에 만든 <작별>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작별>은 동물원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제껏 인간들의 시선에서 '꿈과 낭만의 동산'으로만 묘사되어 온 동물원의 이면, 그러니까 일평생 철창에 갇혀 살아가는 야생동물들의 입장에서 동물원을 바라본 영화이지요.

마나면 고향의 숲과 초원에서 붙잡혀 낯선 도시의 철창 안에 갇혀 인간의 눈요기로 살아야 하는 고릴라, 침팬지, 코끼리, 호랑이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할까요? 그들의 눈에 비친 인간 세상은 어떤 것일까요?

그렇다면, 동물원 밖 야생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은 과연 자유로울까요? <작별> 이후 <어느 날 그 길에서>라는 다큐멘터리 영



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행복한 걸까요?

물질은 많아졌지만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외로워하는 것은 왜 일까요?

몇 해 전 서울에 살 때 아파트 근처에서 소쩍새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쩍. 소쩍. 우는 소리는 분명 소쩍새였습니다. 숲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도심 한 가운데, 도대체 소쩍새가 살 만한 곳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소쩍새 소리를 듣다니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귀를 기울였더니 집 근처 학교였습니다.

100년이 넘는 이 고등학교에는 오래된 큰 나무들이 꽤 있는데, 바로 그 나무에 소쩍새가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나도록 고마웠습니다.

어릴 적 많이 들던 소쩍새 소리를 다시 듣는 것은 과연 몇 십년만인지. 마치 잃어버린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너무나 반가웠고, <어느 날 그 길에서>를 만들면서 소쩍새가 교통사고로 가장 많

생태적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모든 크고 작은 행동을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희생되는 야생동물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 반가웠고, 소쩍새가 텃새가 아닌 철새라는 걸 알고 있어 더 고마웠습니다.

먼 남쪽 나라에서 겨울을 보낸 소쩍새는 여름을 나기 위해 다시 한국 땅으로, 그것도 오염되고 황량한 서울 한복판의 우리 동네로 날아와 준 것입니다.

소쩍새 소리를 들은 그 길은 비교적 한적한 뒷길이었는데, 평소 버스를 타고 큰 길로 다니던 저는 이날 그저 좀 걷고 싶어서 뒷길로 걸어오던 참이었습니다.

5월의 서늘한 저녁, 자동차 소음 사이로 들리는 소쩍새 소리를 가슴에 새기며 저는 '걷는다'는 것은 잃어버린 관계의 회복임을 절감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 다닌다면,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건물보다는 나무와 숲을 사랑한다면, 소쩍새 뿐 아니라 부엉이, 딱따구리, 다람쥐, 족제비, 개구리 등 더 많은 생명들이 우리 곁으로 돌아오겠지요.

우리 아이에게 보여줄 산양과 북극곰을 지켜주세요

관심 있게 바라보면 이 오염된 도시에도 아직 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경기도의 아파트 단지에도 많은 새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비둘기, 까치 정도만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보면 오목눈이, 박새,





곤줄박이, 멧쟁이새, 오색딱따구리, 청딱따구리, 딱새, 직박구리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마을의 '주민' 이고 저의 소중한 이웃들입니다.

그들이 있어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들이 내게 주는 행복과 위안만큼, 나도 그들에게 '해로운 동물' 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지나면 당연히 오는 걸로 생각했던 '봄' 이라는 계절도 이제는 점점 짧아지고 어찌면 사라져버릴지도 모르는 지금, 우리 동네 매화나무가 10년 뒤, 20년 뒤에도 꽃을 피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꽃이 사라지고, 꿀벌이 사라지고, 나무가 사라지면, 오목눈이도, 딱새도 사라지겠죠.

그들이 모두 사라진 땅에서 우리 아이들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나' 라는 존재는 생존할 수 있을까요?

생태적으로 산다는 것은 땅을 '투기' 나 '개발' 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못생명이 살아가는 생명 공동

체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생태적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생명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생태적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모든 크고 작은 행동들이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행동, 에어컨 대신 선풍기나 부채를 이용하는 것, 비닐 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고,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자제하고, 일회용품 대신 개인 컵과 젓가락을 들고 다니는 작은 실천들이 전혀 귀찮다고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생태적인 삶은 취향이나 '라이프 스타일' 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 이 걸린 중요한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6월 10일. 여름의 들머리이지만 이미 기온은 31도를 넘어섭니다.

집 근처 뽕꾸기도 오늘은 너무 더운 건지 조용하기만 하네요. 아기도 더워서 놀이터에 나가지 못하고 집 안에 있습니다. 해마다 최고 온도를 기록하는데 올 여름이 사상 초유의 더위가 될 거라고 누군가 짐을 주더군요.

우리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산양과 북극곰을 '지구에서 사라진 동물' 도감에서 만나지 않기를 바라며 오래된 선풍기의 먼지를 닦습니다.



황 윤 영화감독

다큐멘터리 <어느 날 그 길에서>
<작별> <침묵의 숲> 등 제작

K씨,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다

자전거의 엔진, 바로 나!

자전거는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교통 수단이다. 발끝에 힘을 주어 페달을 한 바퀴 돌리면 더도 덜도 아닌 딱 그만큼만 앞으로 굴러가고, 숨이 턱밀까지 차 올라 슬슬 다리에 힘이 풀리기 시작하면 바퀴도 덩달아 느리게 굴러간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끼리 흔히 우스갯소리로 사람을 엔진에 비유하곤 한다. 즉, 아무리 비싼 자전거를 탄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건 결국 페달을 돌리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마치 자전거와 사람은 단순히 주인과 탈것의 관계가 아닌 함께 호흡을 맞추며 힘을 합하여 달리는 한 몸과 같은 존재라는 말처럼 들린다. 함께 호흡하고 교감할 수 있기에 먼 출퇴근길을 혼자 달려도 심심하지가 않다.

나는 이제 막 자전거 출퇴근을 시작한 그야말로 초보 라이더다. 어쩐지 다리에 쥐가 나도록 페달을 돌려도 좀처럼 속도가 붙는 것 같지도 않고, 한 시간 남짓 걸려서 사무실에 도착하고 나면 배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민망할 정도로 크게 들릴 때도 있었다. 자리에 앉



자마자 이내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지 못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몸은 조금 힘들지 몰라도 마음만큼은 철없는 아이처럼 마냥 즐겁기만 하다.

물론, 겨우 몇 번 타고 다녔다 해서 금세 눈에 띄게 건강해지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중요한건 몸의 변화가 아닌 마음의 변화다. 더 이상 지루한 일상이 반복되는 출퇴근길이 아니라,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하나의 즐거움으로 느껴진다는 사실만으로도 나에게는 너무 큰 축복이다.

집에서 학교까지는 버스와 지하철을 세 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만만치 않은 거리다. 아무리 종종걸음으로 발걸음을 재촉도 한 시간 반이 넘게 걸리는 거리. 이 지옥 같은 길로 다닌 지도 벌써 5년이다 되어간다.

처음엔 자전거로 다녀볼 생각은 엄두도 못 났었다. 얼마나 힘



이 들고 지칠지, 차도에서는 또 얼마나 위험할지, 오르막이 생각보다 심한 건 아닐지 하는 걱정에도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그랬던 내가 자전거 출퇴근을 시작하게 된 건, 다름 아닌 이번 여름 제주도 자전거 일주를 준비 하면서부터였다. 제주도에 가면 적어도 하루에 50km 씩은 자전거를 타야 한데, 매일 의자에 앉아있기만 하는 나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남은 시간은 이제 겨우 두 달 남짓. 걱정스런 마음에 주말마다 조금씩 자전

하지만 나에게는, 마치 자전거와 사람은 단순히 주인과 탈것의 관계가 아닌 함께 호흡을 맞추며 힘을 합쳐 달리는 한 몸과 같은 존재라는 말처럼 들린다. 을 혼자 달려도 심심하지 않다.

거를 타다가, 우연히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자전거 도로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나와 자전거의 아름다운 동거는 시작되었다.

8:00

화곡동 집에서 출발

예전 같으면 벌써 허겁지겁 세수를 하고 식사는 하는 등 마는 등 정신없이 뛰어 나왔을 시간. 하지만 오늘은 뉴스도 좀 보고 신문도 읽으면서 여유롭게 아침식사를 마친 후 출근 채비를 마친다.

대중교통으로는 한 시간 반 넘게 걸리던 출근길이 자전거로는 한 시간도 채 걸리질 않는다. 덕분에 모처럼 달콤한 아침잠도 더 즐기고, 한결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

머리에는 빨간 헬멧을 꼭 눌러쓰고, 가방에 갈아입을 티셔츠 하나 달랑 챙겨 집을 나섰다.

자전거는 맨몸으로 속도를 내는 운동인 만큼, 가까운 거리를 가더라도 항상 헬멧과 장갑을 착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

8:10

염강 나들목으로 한강 진입

염강 나들목은 집에서 한강 자전거 도로로 나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다. 다행히 집에서 나들목까지 인도를 따라 자전거 도로가 놓여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유명무실한 시늉에 불과하다.

도로 위의 불청객들을 피해 자전거 도로와 인도를 오가며 달리니 엉덩이가 다 욕신겨린다.

인식의 전환
다들 한 세대 차 상황을 이해를 못하겠고, 나아가 세대간의 디지털격차를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이럴 때면 자전거 도로를 딱하니 가로막고 선 자동차들이 그렇게 알미울 수가 없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나들목을 빠져나와 한강 자전거 도로에 들어서면, 눈앞에는 안개가 자욱한 한강의 아침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8:15

안양천 합수부 도착, 안양천 진입

여느 때 같았으면 한참 동안 집 앞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이제 막 탑승했을 시간. 하지만 쉿쉿 잘도 달려서 어느새 안양천과 한강이 만나는 양화교 아래를 지났다.

이른 아침에도 한강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참 많다. 가끔 양복 차림에 벡타이를 휘날리며 자전거로 출근길에 나선 반가운 사람들도 스쳐 지나간다.

8:19AM

신정교, 도림천 합수지점 도착, 도림천 진입

안양천을 따라 계속해서 목동교, 오목교를 지나 신정교에 도착했다. 이제부터는 자전거 도로 위로 지하철 2호선이 함께

8:55

서울대 도착

집에서부터 계속 자전거 도로가 이어지는 최적의 코스라고는 하지만, 마지막 2km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차도를 따라 달려야만 한다.

출근 시간이라 버스와 자가용이 뒤엉켜 도로 사정이 그리 좋지는 않다. 그래도 차들의 흐름에 맞춰 가며 신호를 따라 달리면 그리 위험하지는 않다.

집을 출발한지 55분 만에, 드디어 서울대 정문을 통과했다. 오늘도 무사히 자전거 출근에 성공이다. 시원하게 세수도 하고 옷도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는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인사 하며 힘차게



6

7





8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해본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저 지치고 힘든 평범한 아침이겠지만, 신나게 바람을 가르며 기분 좋게 달려온 나에게는 기운 넘치고 즐거운 하루의 시작이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전거와 함께 하는 하루

어느덧 하루 일과가 끝나고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 역시 퇴근이 기다려지긴 하지만 얼른 집에 가고 싶어서 보다는 빨리 또 자전거를 타고 싶은 마음에서인 것 같다. 심지어 완전히 파김치가 되어버리는 금요일 저녁에도,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퇴근길을 달릴 생각만 하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올 정도다.

퇴근길에 자전거를 타고 달리며 가장 짜릿한 순간은 다름 아닌 한강 위로

인식의 고착은 단순한 세대 차 상충에서 오해를 불러오고, 나아가 세대간의 대치상황을 갈등과 충돌의 양태로 물이끼기 쉽다.

저물어가는 멋진 석양을 마주했을 때. 예쁜 오렌지 빛으로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태양을 마주하면서 오늘 하루 안 좋았던 기억은 모두 잊고 좋은 생각만 가득 가슴에 담아 하루를 마무리 해 본다.

어느새 날이 점점 더워지기 시작한다.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그나마 시원한 바람이 불긴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 되면 더 힘들어 질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맘은 좀 홀리더라도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매일 같이 온몸으로 느끼는 짜릿함은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자칫 지루하게 반복될 뻔 했던 나의 일상상은 어느새 자전거와 더불어 즐거움과 웃음이 가득한 삶으로 변해 있었다. '자전거야 고맙다, 덕분에 오늘도 내가 웃는다!'



김민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



세상에 나쁜 벌레는 없다.



1. 황금빛 전령

그가 도착한 것은 8월의 어느 아침이었다. 수돗가 물통 안에 반짝반짝 금빛으로, 들여다 보다가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말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내게 도착한 황금빛 전령이었다! 고대로부터 딱정벌레는 신의 전령이라 불려졌다. 그리고 전달부터 조안 엘리자베스 록의 '세상에 나쁜 벌레는 없다'를 읽고 있었던 것이다.

참, 태어나서도 처음이었다. 곤충이란 것을 제 손에 얹어보기는. 일하던 중이라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그래서 어찌면, 용기를 낼 수도 있었겠지만. 클로버 사이로 모셨다.

황금빛 전령은... 그렇게 기쁨을 전하다 힘차게 날아올랐다.

2. 작은 것에 깃든 신의 목소리

이틀 후, 두 번째 전령이 도착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한참을 머물러 있었다.

이번에는 놀란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눈물이 났다. 잠시 전, 책을 다 읽었고 그리고 작가의 후기에는 원고를 다 쓰자 역시 어디선가 딱정벌레가 날아와 한동안 머물다 갔다고 전했다. 저자가 벌레 책을 쓰는 동안은 것처럼 벌레들은 가장 가까이 '작은 것에 깃든 신의 목소리'를 전해 주었다.

손가락에 모셨다.

'벌레처럼' 징그럽고 위험하고 더럽고 불쾌한 '벌레같은' 것이 더 이상은 아니었으므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처럼 태어났다. 그는 벌레의 몸으로 나는 인간의 몸으로, 다른 건 단지 그 뿐이란 걸. 만약 당신이 키우고 보살피는 생물이 있다면 아니 한번이라도 눈여겨 본 일이 있다면 그들 나뭇의 질서와 집단(사회)의식, 생활(행동) 습관과 취향 등이 인간종의 그것과도 별다르지 않음을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인간은 제 손바닥만한 지식으로 인



손가락에 모셨다.
"벌레처럼" 징그럽고 위험하고 더럽고 불쾌한 '벌레같은' 것이 더 이상은 아니었으므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처럼 태어났다. 그는 벌레의 몸으로 나는 인간의 몸으로, 다른 건 단지 그 뿐이란 걸. 만약 당신이 키우고 보살피는 생물이 있다면 아니 한번이라도 눈여겨 본 일이 있다면 그들 나뭇의 질서와 집단(사회)의식, 생활(행동) 습관과 취향 등이 인간종의 그것과도 별다르지 않음을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인간은 제 손바닥만한 지식으로 인

간 아닌 존재들을 측정하고 분류하며 정의할 뿐 그렇게 인간과 인간 아닌 것으로 생명을 구분할 뿐 스스로 만물의 지배자라 이름하며 인간이 아니면 지능도 마음도 감정도 영혼도 '있을 수 없다'라는 인간만의 기준을 내세웠다. 만약 나무의 마음이나 딱정벌레 입장에서 또는 애완생물의 생각에 인간의 지능이나 감정은, 살아가는데 아무런 필요도 없는 짐과 관계와 욕구를, 평생 이고지는 삶이 참으로 미개하다 하등하다 여길 지도 모르겠다.

만약 우리가 인간 이외의 생명들과 잠시라도 진심을 나눈다면 그들도 그들 방식으로 유머스럽고 사려 깊으며 지혜롭고 저마다 특별한 삶과 힘으로 관계를 존중하고 전체를 위해 하나는, 보다 유기적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3. 개미 정령과의 대화

거의 매일같이 빵을 굽는 부엌바닥이다. 마룻결 틈새로 빵 부스러기란 말로 다 못할 것이다. 게다가 안이나 밖이나 높낮이도 엇비슷한 시골집이다. 벌레가 왜 없겠는가. 실제로 마당 곳곳에 개미집들도 여러 채 보았다.

참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부엌 뿐만 아니라 강아지 밥까지 개미로 들어차 강아지가 밥을 먹을 수 없었다. 먹으라치면 그 애 입까지 물어버렸으니까. 살충제로도 하루 이틀이지, 사람 사는 집에 번번히 할 것이 아니다. 그때 벌레 책의 조언이 떠올랐다! 만약에 만약에, 그 벌레 책의 수많은 '협상 사례' 들처럼 내게도 아니 나와 우리집 개미들과도 가능한 일이라면?

그저 마음 속으로 부엌 개미들에게 애기를 걸었다. 작업하는데 정말 신경이 쓰인다고. 그래도 있겠다면 타협은 없을 거라





고, 여긴 나의 장소이니 존중해줬으면 한다고.

그리고 보이는 개미들을 한 며칠동안 조심조심 밖으로 옮겨주었다. 지금까지 진 보이는데로 그냥 놀러 버렸는데!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

도대체 이 이상하고 황당한 얘기란.

그러니까, 오늘까지도! 부엌은 존중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지금도 마룻바닥의 빵 부스러기를 쓸다보면 정말이지 궁금하다.

어쩌다 한두 마리의 길 잃은 개미가 보일 때도 있지만 분명한 건 그들이 루트를 바꾸었다는 것이다! 사람의 부엌만큼은 예들러서, 하도 신기해 하던 중 작년의 일이 떠올랐다. 그리고 보니 그 때 도 어느 날부터 '그들' 이 나타나지 않았다. 겨울엔가, 더욱이나 화장실에 지



내 새끼가 한두마리 보이더니 징그럽고 놀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죽이는 것도 번번이 너무나 무섭고 싫었다. 급기야는 점점 불어나는지 방에도 부엌에도 어디에나 다니고 있었다.

그렇다고 시골집의 구멍이란 구멍을 다 막을 순 없지 않은가. 완전히 지쳐 나가떨어질 지경이 되자 나도 모르게 빌었다. 제발 좀 나가 달라고. 정말 힘들다고. 있으면 자꾸 싸우게 될 거라고. 그리고 보이는데로 밖에 옮겨 주었다.

그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안 나온다! 어디로 갔는지. 무슨 일인지? 그리고 개미정령과의 협상까지. 어렵짐작에도 두 번의 일이 단순한 우연만은 아닐 것이라 짐작할 뿐이다.

그러나 강아지의 장소인 쪽마루와 밥그릇은 여전했다. 어머니가 하도 심란해 하셔서 폭력과 살해(?)의 방법 대신 어머니가 원하는 공존과 평화의 방식을 나눠 드렸다. 자신이 있었다.

딸이 하는 얘기니까 그래그래 하고 들으시지만 정말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괴상망측한 얘기이며 그렇지만 또 어찌 보면 그럴 법도 하였고- 어머니는 열렬한 동물 애호가이다!- 실제로 당신도 아는 얘기로 부엌엔 이제 개미가 오지 않는다! 맛난

빵조각이 매일같이 바닥 한 가득인데도. 이번에는 어머니가 전했다. 여긴 너희들의 장소가 아니라고. 대신 준비된 장소에 먹을 것을 제공하겠다고. 그리고 늘 있는 빵조각을 마루 가장자리 밖으로 옮겨 놓았다. 곧이어 개미들이 새까맣게 몰려왔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배불리 먹었다. 물론, 오늘까지도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 이제 공물을 바치지도 않는다.

4. 나락으로 떨어졌다 솟아오르기

전원생활, 도시 생활자라면 한번쯤은 그러본다. 내손으로 평생의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는 자급자족적 삶! 막상 이루기까지 했다면... 이주 첫날부터 벌레와의 살이도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맨피부로 실감한다.

도시에서처럼 벌레 섬멸전이 시골에서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게다가 화학 살충제란 것도 여간 꺼림칙하지 않다. 또한 웬일인지 원주민들에겐 일상적인 불편이나 위협, 발병·사레 또한 그다지 없는 듯 하다. 하긴 지역출신을 떠나 그렇기도 하다.

지난 해 어머니는 찌즈가무시라는 이곳 말로는 쥐병에 걸려 한동안 땀땀 앓으셨다. 칠순 노인에게 그럴만도 한 것이 찌즈가무시는 이타이이타이 병처럼 '아프다 아프다' 병이란단.

원인은 일종의 쥐 진드기로 치료는 항생제이지만 예방은 토시와 긴팔, 야외에서 앉지 않기 등이다. 그 외 또 다른 종류의 쥐병이 있어서 1년에 1회는 백신을 맞아야 한다.

다. 그러다 그날 밤 한 번쯤은 맨피부를 맨피부로 실감한다. 이주 첫날부터 벌레와의 살이도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맨피부로 실감한다. 내손으로 평생의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는 자급자족적 삶! 막상 이루기까지 했다면... 이주 첫날부터 벌레와의 살이도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맨피부로 실감한다.

여하튼 다시는 감염되지 않기 위해 보건소에 갔다가 방수천 토시 2벌과 마스크를 처방 받은 머리 끝까지 식겁했다. 열흘간의 입원으로 찌즈가무시는 물러갔지만 그 엇비슷한 피부병이 생겨 지금도 잘 낫지 않는다.

심할 때마다 도시와 시골병원을 오가며 항생제 치료를 받으신다. 나도 번고가 없지는 않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숲이나 들로나물 노동자 내지는 열매 채취자 정도가 되는 탓인지, 아니면 한번씩 진심으로 '그들의 노여움' 등은 아닐까 싶은 것이 그 같은 발진이 철마다 오고간다. 지금도 채취철이라 지난 해 사라졌던 증상이 다시 나타났고 일상적으로 불편하다 싶게 고생스럽다. 그러나 일체의 대중요법은 하지 않는다.

한 이십년 넘게 십여 가지 이상의 알레르기를 앓아 항생제 처방만큼은 가장 몹쓸 위협으로 여겨진다. 어머니만 하더라도 연고와 약이 떨어지면 여지없이 더 심해진다. 그리고 점점 더센 처방이 아니면 약도 듣지 않는다. 그러니 화학처방을 받든 말든 고생은 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좀더 젊은 나는 그냥 지켜본다.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는 약 없이 견뎌보자며 그래도 이년 쯤라 한결 낫다 하신다.

병의 780% 이상이 심인성에서 온다. 그러므로 원인보다 증세만을 치료하는 대중요법으론 대부분의 질병을 풀어갈 수 없다. 또한 저마다 면역체계에 따라 다양한 반응이 나타난다.

도시생활을 합쳐 백년도 넘는 우리 모녀에게 불과 이삼년의 시골살이란 가히 하늘이 바뀐 환경적 변화인 것이다.

벌레 한 마리도 참을 수 없어했던 세기에 걸친 시간과 관념이 이같은 '경고'와 '전하는 말'을 이끌어 낸 것은 아닐까.

벌레 입장에서 인간이란 이제껏 듣도 보도 못한 치



명적 생명체에 다름 없다. 한마디로 생명의 이유와 근거를 말살하는 이들을 향한 일상적인 경계심이나 분노란 사실, 너무도 당연하지 않은가. 벌레라고 이런 생각을 할 수조차 없을까? 아니, 사고나 의지라기 보단 생존의 문제이므로 그들도 결코 물러설 수 없으리라. 그렇지 않다면 멸종이므로. 실제로 하루에도 40~140종의 생물이 지구별에서 영영 사라지고 있다.

결국 우리가 문제를 대하는 자세는 두 가지로 정리된다. 거부하거나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없는게 현실이라면 받아들이는 진실이다.

진실을 부정하고 회피하는 만큼 문제의 해결도 고통의 수레바퀴도 영영 제 자리를 맴돌 뿐이다.

노자는 말한다.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달리하면 그 바라보던 대상이 변한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면 세상은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도시로 떠났던 인간들이 하나둘씩 원래 자신들의 곳으로 찾아들고 있다.

지금껏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알고 싶지도 않았겠지만 식물종을 비롯한 벌

레 先주민을 향한 우리의 자세란 어떠해야 하는가.

지금껏 그랬고 보고 들었던 것처럼 代를 멸하는 폭력전을 죽을 때까지 서로 치루거나... 또는 말이다... 인간 아닌 생명들 그 중에서도 가장 작고 여린 것들이



그들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나 근거에 대해 한번쯤은, 진심으로 평화와 공존의 인사를 건네보시길 이 자리를 빌어 정중히 두 손 모은다.

그런데 아무리 부탁해도 그들 쪽에서 거절한다면? 그때는 결렬의 메시지를 과감히 할 수도 있다. 저자 엘리자베스 룩에 따르면 벌레는 육체의 형태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것은 일상적으로 그들이 서로를 죽이고 잡아먹는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단다. 좀더 자세히 들여보자면

따라서 집 안에 있는 벌레를 죽이는 것 외에 다른 해결책이 없다면, 저는 죽여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육체의 형태 속에 갇힌 벌레의 영혼을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풀어줄 때는 벌레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합니다.

중요의 기운이야말로 곤충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해로운 독이기 때문입니다. 입증할 수는 없지만 저는 우리의 적개심이 오히려 곤충을 우리 곁에(가상의 적으로) 묶어둔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곤충은 우리의 적대적 생각이 뿜어낸 독에





중독되어 헤어지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곤충을 관용과 애정으로 대하면 곤충과의 만남은 전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곤충을 죽이더라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체험을 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 뽕뽕거리는 나의 신이시여

거룩한 이가 만물에게 붙여준 이름에 귀를 기울여보라...

우리는 다리가 몇 개 달렸는지에 따라 이름을 붙이지만 그이는 내면의 정체에 따라 이름을 붙인다.

루미의 시를 떠올리며 풍뎡이 전령을 들여다 보고 있었다. 내게 도착한 첫번째 심부름꾼이었다. 그리고 이어, 바로 눈 앞에! 다음 전령이 도착한 걸 알았

다. 밤이 한참도 늦었지만.

우리는... 따뜻하고 경건했다. '새로이 생각하는 동안 일어난.. 이 놀라운 경험'을 호주 先주민 '우아한 흑고니'의 말로 전하고 싶다.

거대한 하나됨 속에는 모든 것이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괴물이나 돌연변이나 우연 따위는 없답니다. 단지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요.

-말로 모건의 무탄트 메시지에서.

그리고 아래 조안 엘리자베스 룩의 편지 중 일부를 부친다.

작은 것들 속에 깃든 신의 목소리 '세상에 나쁜 벌레는 없다'

-조안 엘리자베스 룩

서문

제 책이 한국어로 번역된다는 소식에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게다가 자아 계발, 대안 농법,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에 조예가 깊은 독자층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이 책을 쓰는 것은 제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람들이 곤충을 존중해주었으면 하는 바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곤충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알게 되면서 저는 이 작은 생명체들이 환경은 물론 인간 심리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주민들은 신이 곤충을 비롯한 모든 작은 생명체들을 만들 때 우주의 신비롭고 창조적인 기운을 전하는 전령이 될 수 있도록 소박하고 단순한 몸을 주었다고 믿었습니다. 저 또한 개인적 경험과 연구를 통해 선주민들의 생각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간과 곤충의 관계에 대한 강연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벌레가 부익 같은 곳에 불청객처럼 나타나면 어떻게 대해야 되냐고 묻습니다. 저는 이 책에 소개된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이연화 웹디자이너, 제빵사, 요가교사

共通禮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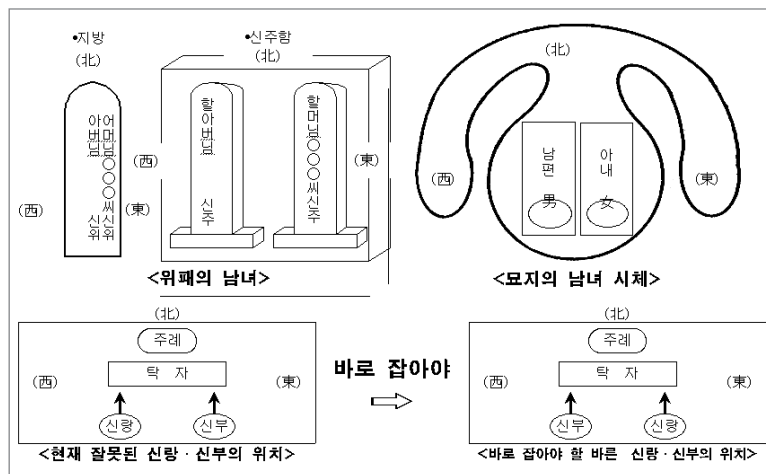
공통예절



김득중 한국전례연구원 원장

예절(禮節)의 방위(方位)와 상하석(上下席)의 기준(基準) 및 좌석배치(座席配置)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지 신랑과 신부가 죽은 이의 위패인 신주·지방, 또는 묘지에 묻힌 부부의 시체와 같은 위치에 서서 혼인예식을 하고 있다. 차마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죽은 신위나 묘지의 시체는 남자가 西쪽이고 여자가 東쪽이다. 죽은이는 남자가 서쪽, 여자가 동쪽에 위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산 사람은 남자가 東쪽, 여자가 西쪽이어야 하는 것이다. 남자가 陽이니까 해가 뜨는 동쪽에 자리잡고, 여자는 陰이니까 해가 지는 西쪽에 위치하는 것이다. 이런 이치를 모르고 신랑과 신부가 죽은이의 위치에서 혼인을 하니 참으로 심각한 일이다.

혼인예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각성해야 할 것이다. 이제 바른 위치를 알아 신랑·신부가 산 사람의 위치에 서야할 것이다.

1. 예절의 방위(方位)

1) 예절의 동서남북(東西南北)

일상생활이나 의식행사에서 방향을 말할 때는 전후좌우(前後左右)라 하는데 예절에서 방향을 말하려면 동서남북(東西南北)이라 한다.

여러 사람이 각기 향한 곳이 다르면서 전후좌우라 말하면 누구의 전후좌우인지 분간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혼란을 막기 위해서이다. 다시 말해 마주 앉은 사람의 전후좌우는 정반대가 되어 누구의 전후좌우인지 혼란이 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절에서는 전후좌우라 말하지 않고 동서남북이라 말한다. 그런데 예절에서 말하는 동서남북은 자연의 동서남북과 관계없이 예절을 하는 장소에서 제일 윗자리(上席)가 북(北)쪽

이고, 상석의 앞이 남(南)이며, 왼쪽이 동(東)이고, 오른쪽이 서(西)쪽이 된다. 그 이유는 상석에 웃어른이 앉아야 하는데 언제든지 웃어른은 남향해 앉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날부터 '임금은 남쪽을 향한다(南面)'고 하였다.

웃어른이 남향해야 하는 까닭은 남쪽은 햇볕이 가장 잘 쏘이는데 태양광선은 곧 생명의 원천(源泉)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남향해서 햇볕을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주변의 초목을 보아도 잎이나 줄기가 모두 남쪽으로 더 잘 자라고, 돼지우리 한 칸을 지을 때도 남향으로 지으며, 아파트도 정남향(正南向)이 분양이 잘 된다.

따라서 예절의 동서남북은 제일 어른이 계신 상석을 북쪽으로 해서 동서남북을 설정한다. 이것이 동양의 예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무릇 모든 집의 제도는 그 집이 어느 쪽을 향하고 등졌는지를 묻지 않고 그 집의 앞이 남쪽이 되고 뒤가 북쪽이 되고 왼쪽이 동쪽이 되고 오른 쪽이 서쪽이 된다.

예절에서는 모두 이와 같이 한다(凡屋之制 不問何向背 前爲南 後爲北 左爲東 右爲西 以後皆倣此. 家禮 祠堂條-)고 하였고, "묘지는 산의 지형에 따라 어느 쪽을 향하였든 모두 남향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이상에 의해서 예절을 하는 장소에서의 방위의 기준인 북쪽은 다음과 같이 된다.

- ① 제의례(祭儀禮) 장소에서는 신위를 모신 곳이 북쪽이고,
- ② 혼인예식장에서는 주례가 있는 곳이 북쪽이고,
- ③ 사무실에서는 제일 상급자의 좌석이 있는 곳이 북쪽이고,
- ④ 교실에서는 선생님이 계신 곳이 북쪽이고,
- ⑤ 행사장에서는 단상(壇上)을 설치한 곳이 북쪽이 되고,
- ⑥ 묘지에서는 그 묘지가 어디를 향했든지 북쪽에서 남향한 것으로 보고,
- ⑦ 모든 건물(특히 사당)은 어느 쪽을 향했든지 북쪽에서 남향한 것으로 보아 동서남북을 정한다.

2) 예절방위의 특례(特例)

일반적으로 예절에서의 방위는 동서남북으로 말하며 그 기준도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특례가 있다.

- ① 어떤 자연인(사람)을 특정해서 그를 기준으로 말할 때는 '누구의 왼쪽' '누구의 오른쪽' 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자연인을 기준으로 말하면 혼동될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예: 主人之左, 主人之右-家禮 祭禮-)
- ② 특정 자연인을 기준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좌우나 전후라 말할 때는 웃어른(尊長), 즉 상석의 좌우이며 전후를 의미한다. (左右則 尊長之左右-家禮 居家雜儀-)

2. 남좌여우(男左女右)는 남동여서(男東女西)

1) 공수(拱手)할 때의 남좌여우

우리가 흔히 남좌여우란 말을 많이 쓴다. 공손한 자세를 취하려고 공수할 때 평상시

에 남자는 왼손이 위이고 여자는 오른손이 위인 것이 대표적인 것이다.

공수는 남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혼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상석이 되어 북쪽에서 남쪽을 향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의 앞이 남쪽이 될 것이고, 따라서 왼쪽이 동쪽이고 오른쪽이 서쪽이 된다.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니까 양(陽), 즉 남자의 방위이고,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이니까 음(陰), 즉 여자의 방위이다. 그래서 남자는 왼손을 위로 해서 양을 나타내고,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 해서 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남좌여우란 바로 남자는 동쪽 여자는 서쪽이란 뜻으로 남동여서(男東女西)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기 자기를 기준으로 남자는 왼손을 위로 하고,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 하면 된다.



2422-1 남좌여우는 남동여서



2422-2 상석과 하석의 동서남북은 같다

위 왼쪽 사진의 어른은 자기들이 상석이니까 자기들의 왼쪽이 동쪽이고 자기들의 오른쪽이 서쪽이 되므로 남동여서(男東女西)로 앉은 것이다. 오른쪽 사진은 어른과 아랫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는데 이 장소에서는 어른이 북쪽에서 남향해 앉은 것이고 아랫사람이 남쪽에서 북향해 앉은 것이다.

어떤 곳이든 한 장소에서는 제일 어른이 계신 상석을 북쪽으로 해서 동서남북이 정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아랫사람도 남자가 동쪽에 앉고 여자가 서쪽에 앉으려니까 남자 아랫사람이 남자 웃어른의 앞에 위치하고, 여자 아랫사람이 여자 웃어른의 앞에 위치한 것이다. 아랫사람도 역시 남동여서(男東女西)로 앉은 것이다.

2) 의식행사(儀式行事) 장소에서의 남좌여우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의식장소에 참석할 때의 위치를 남좌여우라고 해서 각자의 좌우에 기준하게 되면 혼란을 야기한다. 분명히 이때의 좌우는 특정의 자연인을 기준으로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그 장소의 상좌의 좌측이 동쪽이니까 거기에 참석한 모두의 동쪽이고 상좌의 우측이 서쪽이니까 거기에 참석한 모두의 서쪽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좌우라고 말하면 혼란이 오고, 동서남북이라고 말하면 알기 쉽다고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특정기준이 없이 좌우라고 말할 때는 좌는 동쪽을 의미하고 우는 서쪽을 가리키는 것이다. 상좌의 좌측이 동쪽이고, 상좌의 우측이 서쪽이기 때문이다.(家禮居家雜儀) 실제로 남좌여우(男左女右)라고 하지만 손을 맞잡는 공수의 경우와 같이 자

기 자신에 국한할 때는 자기의 좌우를 의미하지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참석하는 의식장소의 좌석 배치는 남자가 동쪽이고 여자가 서쪽으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서의 동서는 상좌의 좌측이 동이고 상좌의 우측이 서쪽으로 설정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손의 절을 받기 위해 북쪽에서 남향해 앉을 때 남자인 아버지가 동쪽에 앉고 여자인 어머니가 서쪽에 앉으며, 제례를 올릴 때 자손들이 북쪽의 신위를 향해 설 때도 남자 자손이 신위의 좌측인 동쪽에 서고 여자 자손이 신위의 우측인 서쪽에 선다. 남좌여우는 남동여서(男東女西)임을 알 수 있다.

3. 상하석(上下席)의 기준

같은 장소에 합석하는 사람은 당연히 상하의 위계가 있게 마련이다. 위계가 정해지면 앉거나 설 때의 위치도 위계에 의해 차례를 맞춰야 할 것이다. 웃어른이 상석이고 아랫사람이 하석에 앉든지 서야 위치에 의한 위계질서가 지켜진다. 그렇다면 상석은 어디이며 하석은 어디인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동(東)쪽과 서(西)쪽은 산 사람은 동쪽이 상석이고, 죽은 사람은 서쪽이 상석이다. 좌석을 동과 서로 배치할 때는 산 사람은 동쪽을 상석으로 하고, 죽은 사람은 서쪽이 하석이 되게 좌석을 배치한다. 산 사람은 양계(陽界) 즉 밝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해가 떠서 밝음이 오는 동쪽을 상석으로 하고, 죽은 사람은 음부(陰府) 즉 어두운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해가 저서 어둠이 시작되는 서쪽을 상석으로 해서 좌석을 배치한다. 생사(生死)에 따라 상하석을 달리 정하는 것은 동서(東西)에서만 가리는 것이지 남북(南北)이나 중앙과 양단(兩端) 양변(兩邊)에서는 생사의 구별이 없다.

혼인예식장은 주례가 상석이라 주례는 북쪽에서 남향한 것이고, 주례의 왼쪽이 동쪽이니까 양(陽)인 신랑이 주례의 왼쪽 앞인 동쪽에 서야 하고, 음(陰)인 신부가 주례의 오른쪽 앞인 서쪽에 서야 양·남·생동(陽男生東), 음·여·사서(陰女死西)에 맞는 것이다. 전통혼인에서는 서동부서(婿東婦西), 불교식 혼인례에서도 신랑이 부처의 왼쪽인 동쪽, 신부가 부처의 오른쪽인 서쪽, 가톨릭 혼배성사에서 신랑이 주례신부의 왼쪽 앞인 동쪽, 신부가 주례신부의 오른쪽 앞인 서쪽에 위치한다.

그런데 일부 몽매한 신식 혼인예식장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죽은이의 위치에 서서 혼인예식을 하고 있다. 1994년 6월 16일에 보건사회부장관이 '올바른 예의문화 홍보를 통한 건전 가정의 레실천' (가정65221-350) 문서로 이미 전국의 혼인예식장과 관계 기관 단체에 통지·시달·지도한 일이 있음을 상기할 것이다.

2) 중앙과 양단(兩端), 또는 주변(周邊)에서는 중앙이 상석이다

좌석을 중앙과 양쪽 날개나 주변으로 배치할 때는 중앙이 상석이고, 양쪽 날개나 주변이 하석이 된다. 실제로 중앙에 웃어른이 앉고 그 좌우에 아랫사람이 앉는다

는 것은 우리의 상식에 속하는 문제로서 재론할 필요가 없다. 또한 중앙이 상석이 되는 이유는 북방상천설(北方上天說)에 근거 한다. 못 별 중에서 가장 높은 별은 북극성(北極星)인데 북극성은 중심에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고, 북극성보다 낮은 주변의 별들이 북극성의 주위를 회전한다. 그러니까 중앙이 높고 주변이 낮은 것이다.

3) 북(北)쪽과 남(南)쪽은 북쪽이 상석이다

북쪽에 앉으면 남쪽을 향하게 되고 남쪽의 좌석은 북쪽을 향하게 된다. 북쪽을 상으로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바, 그 첫째는 북방상천설(北方上天說)로서 우주의 회전축이 북극성이고 회전축이 가장 높은 중심이며 그 회전축인 북극성이 북쪽에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태양광선은 생명의 원천인바 북쪽에 위치해야 남쪽을 향할 수 있어 태양광선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도를 그릴 때도 북쪽을 위로 하고, 제례의 신위를 북쪽에 모시는 이유도 북쪽을 상으로 해서이다.

4) 높은 곳과 낮은 곳은 높은 곳이 상석이다

웃어른이 높은 곳에 앉고 아랫사람이 낮은 곳에 위치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이다. 의식행사장을 설치할 때 단상(壇上)과 단하를 구분하고, 단상에 웃어른이 위치하는 이유도 높은 곳을 상석으로 해서이다.

5) 앞쪽과 뒤쪽은 앞쪽이 상석이다

좌석의 배치는 어떤 목적과 목표를 향해 설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쪽이 목표에 가깝고 뒤쪽이 목표에서 멀게 된다. 당연히 목표에 가까운 앞이 상석이 된다. 또한 웃어른이 아랫사람을 거느리는 것이고 앞에 있어야 모두를 거느릴 수 있기 때문이다.

6) 편리(便利)와 불편(不便)은 편리한 곳이 상석이다

웃어른을 편리한 곳에 모시고 아랫사람이 불편한 위치에 있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승용차에 탈 때도 타고 내리기 편리한 자리가 상석이고, 관광여행에는 경치를 구경하기 편리한 창 쪽이 상석이고, 달리는 차에서는 달리는 쪽을 등지는 것보다 향하는 것이 편리하니까 상석이다.

7) 깊은 안쪽과 얇은 바깥쪽은 깊은 안쪽이 상석이다

사무실에 좌석을 배치할 때도 안쪽에 높은 사람이나 책임자가 출입문을 향해 앉고 그 바깥 출입문 쪽으로 아래 직원들의 좌석이 배치된다. 이것은 웃어른이 안쪽에서 아랫사람을 관리하면서 바깥쪽을 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8) 안전(安全)한 곳과 위험(危險)한 곳은 안전한 곳이 상석이다

웃어른을 안전하게 모시는 것이 당연한 공경의 도리이다.

9) 상석과 가까운 곳이 상이다

여러 개의 좌석을 배치함에 있어서 최 상위자를 상석에 모시고, 그 다음 차례의 순위자가 앉는 자리도 위계에 의한 차례에 따라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상석에서 먼 곳보다 가까운 곳이 상석이 된다.

10) 남자와 여자는 남자가 상석이 아니고, 상석으로 의제(擬制)한다

남녀가 좌석에 위치할 때 남자가 상석인 것은 남존여비(男尊女卑)사상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남자와 여자가 상하가 있어서가 아니라 양(陽)과 음(陰)으로 해석해야 한다.

남자는 양이라 해뜨는 동쪽에 위치하고, 여자는 음이라 해지는 서쪽에 위치하는데, 산 사람은 동쪽이 상석이고 죽은 사람은 서쪽이 상석이라 결과적으로 남자가 상석에 위치하고 여자가 하석에 위치한 것이 된다.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좌석배치라 남녀의 좌석배치에서는 항상 남자를 상석에 위치하게 하여 남자를 상석으로 의제·간주(擬制·看做)하여 혼란을 피하는 것이다.

남자인 아버지가 동쪽에 앉고 여자인 어머니가 서쪽에 앉으며, 전통혼인례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는 위치도 남자인 신랑이 동쪽이고 여자인 신부가 서쪽이며, 제례를 올릴 때 자손들이 북쪽의 신위를 향해 설 때도 남자 자손이 신위의 좌측인 동쪽에 서고 여자 자손이 신위의 우측인 서쪽에 선다. 남좌여우(男東女西)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남녀의 좌석배치는 남상여하(男上女下)가 아니라 양동음서(陽東陰西)의 음양논리(陰陽論理)에 따르는 것이다.

11) 상하석의 기준이 상충(相衝)되면 목적(目的)에 맞게 한다

위에 설명한 상하석의 기준에 맞춰서 위치를 정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는 상석의 위치가 다른 기준으로는 하석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 때는 그 좌석 배치의 목적에 맞는 기준을 선택해서 배치한다. 즉 남자는 동쪽이고 여자는 서쪽이며, 상급자는 동쪽이고 하급자는 서쪽이어야 하는데 여자가 상급자이고 남자가 하급자인 남녀가 합석하려면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혼란이 온다.

남녀로 배치하면 상급자인 여자가 서쪽으로 가게 되어 상하석의 기준에 맞지 않고, 상하급으로 배치하면 상급자인 여자가 동쪽에 앉게 되어 역시 남동여서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 그런 때는 좌석배치의 목적에 가까운 기준을 적용한다. 즉 남녀로 합석하는 경우는 상하를 따질 것이 아니라 남동여서(男東女西)의 기준을 적용하여 남자가 동쪽에 앉고 여자가 서쪽에 앉는다.

반대로 상하급자로 합석할 때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상동하서(上東下西)의 기준을 적용하여 상급자가 동쪽이고 하급자가 서쪽에 앉으면 되는 것이다.

※ 다음 호에는 좌석배치의 실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하게 됩니다.

동대문문화원

왕언니클럽 어르신문화 나눔공연 인기폭발
-서초 시니어 아카데미 100여명 환호,
대학축제도 초청

동대문문화원(원장 김영섭) 왕언니클럽은 지난 6월 3일 서초구 서초3동 소재 서초성당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 연합회, 동대문구의 후원으로 어르신 문화학교 문화나눔 공연을 가졌다. 이날 공연은 서초 시니어 아카데미의 초청으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왕언니들의 대표적 레퍼토리 외에도 색소폰 앙상블의 연주와 초청 가수의 공연 등이 더해져 참석한 어르신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특히 이날 공연에서는 왕언니들이 최근 유명 걸 그룹의 노래인 ‘뽀빠뽀’와 ‘아브라카 다브라’를 함께 공연하여 참석자들이 환호는 물론 깜짝 놀랐다는 반응을 보여 커다란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동대문문화원의 왕언니 클럽은 금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어르신 문화나눔사업에 선정되어 그동안 양로원, 각 지역 시니어 아카데미 등 소외된 이들과 어르신들을 찾아 공연으로 웃음과 용기를 주어왔다. 한편 왕언니 클럽은 지난 5월26일에는 경희대학교 축제에 초청받아 공연을 펼쳐 관내대학교 학생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아 명실공히 남녀노소가 모두 좋아하는 공연단으로 이름을 굳히고 있다.

동래문화원

“얼쑤! 어르신 동래학춤 교실” 개최



동래문화원(원장 성원주)은 동래지방에서 전승되어 오는 동래학춤을 어르신들이 직접 배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얼쑤! 어르신 동래학춤교실을 개강하였다. 이 교실은 6월9일부터 5개월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동래문화회관 회의실에서 열리며, 동래학춤의 기본지식 이론을 시작으로 다양한 걸음걸이와 팔 사위 과정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문경문화원

빛속에 쏟아진 달빛
2010년 제2회 문경새재달빛사랑여행



문경문화원(원장 현한근)이 주관하는 ‘2010년 문경새재달빛사랑여행’ 제2회 행사가 5월 22일 토요일 비가 오는 가운데도 전국에서 모인 300여명 여행객들의 열띤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 문경새재에 녹음이 짙어가고, 많은 문화유산에서 이야기가 피어오르는 속에 달빛과 사랑이야기로 마련한 이 행사는 인터넷을 통해 전국의 여행객들이 가족단위로 참여한 것이다.

문경새재야외공연장에서 출발하는 이 여행은 문화관광해설사들의 구수한 입담으로 여행의 재미를 더하고 있으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여행객들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다. 사랑을 주제로 구성된 이 여행은 자연생태공원 연못에서 첫사발낚시를 ‘인연 맺기’라는 이야기로 구성하였고, 문경새재 1관문 성황당에서는 소원지 길기를 ‘비나이다’라는 이야기로 만들어 여행객들이 직접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체험하고 사랑을 키우도록 하였다. 올해 처음 도입된 심천 이상배 선생과 함께하는 ‘나만의 사랑이야기 그리기’ 코너에서는 누구나 붓을 들고 화가가 될 수 있도록 꾸며졌으며, 많은 문화유산의 해설 속에 여행객들은 일지매 산채 드라마세트장으로 들어서서 다트를 이용한 ‘큐피드 사랑의 화살’을 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문경의 특산 동동주인 오미자 동동주로 ‘사랑의 묘약’을 마시게 되면서 모두가 사랑에 취하게 된다.

이어서 과거시험을 재현하여 ‘사랑의 작가되기’를 체험하며, 여기서 입상한 사람들은 마지막 공연무대에서 수상을 하게 되고, 장원급제자는 교지(敎旨-여기서는 通知와 함께 자작시 낭송도 할 수 있게 꾸며졌다. 마지막 공연무대에서는 ‘사랑의 미술’이 펼쳐지는데, 신기한 리인매직의 미술쇼, 문경에서만 볼 수 있는 문경새재이리랑, 심천 이상배 선생의 ‘달빛사랑여행’ 그림 퍼포먼스, 아련한 산속 색소폰 공연이 신나게 펼쳐진다. 이번 여행은 빛속에 쏟아지는 달빛이 여행객 마음마다에 피어났으며, KBS대구방송의 ‘행복발견’, 안동MBC의 ‘공간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여 이번 주 중 방영될 예정이다.

영암문화원

해맑은 웃음 희망찬 가슴!

2010 영암어린이날 큰잔치 개최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큰잔치에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위해 매년 영암문화원(원장 신태균과 전교조 영암지회(지회장 김기중) 공동 주관으로 열린 '2010 영암어린이날 큰잔치'가 지난 5일 영암왕인공원에서 성황리 마쳤다. 서중배 부군수를 비롯한 각급 기관 · 사회 단체장과 문화원임원, 어린이와 부모 등 2,000여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앞 마당에(팜플렛 · 우유 나누어주기, 얼굴페인팅, 문화원품물패축하공연), 여는마당에는 기념식과 어린이날 노래, 주제 박 터트리기에 이어 놀이마당에(5인조포살대회, 유아놀이마당, 민속놀이마당, 신나는가족 노래방), 체험마당(피오피 포트 · 도자기 빚기 · 천연염색하기 · 동남아시아 문화체험 · 월출산 국립공원과의생태 · 과학체험 · 짚풀공예 · 튀밥 튀겨 주기 · 솟대 만들기 체험 · 우리고장 문화재 판화체험 · 부모와 함께 하는 천자문 다트 맞추기 · 헬기(탐승체험 및 기념촬영하기 · 119 소방안전 체험) 어울마당(마술쇼 · 어린이장기자랑 · 댄스축하공연), 전시마당(겨레의 어린이에게 좋은 책들.. · 포돌이, 포순이 함께 기념촬영 · 영암관광사진 전시회)이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해맑은 웃음 희망찬 가슴!'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큰잔치는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건전하고 바람직한 문화를 찾고, 어린이가 주인이 되어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을 체험했다.

영천문화원

입암을 중심으로 바위 하나하나에 별자리
영천문화원 영천 보현산 별빛축제
노계 박인으로 별빛투어 주관



영천문화원(원장 성영관)에서 주관한 노계 박인으로 별빛투어가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내 · 외국인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계서원, 광릉, 영천와인학교, 보현산 천수누림숲, 보현산 천문대, 축제장, 입암서원, 시안미술관, 운주산자연휴양림 등에서 진행됐다. 이번 투어는 '별의 도시, 별의 도시 - 스타 영천'의 브랜드를 정착시키고 보현산과 금호강의 조화로 찬란하게 형성된 영천의 문화와 인물, 청정 자연환경을 소개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원석 영천문화원 사무국장과 서담규 · 김상호 · 허남용 · 최재열 · 김종식 · 김진태 경상북도문화관광해설사, 이승은 순해설사, 한국학중앙연구소 김일권 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용훈 연구원, 영남대 천문동아리 '그리니치', 영천천년문화연구회 등에서 관광객들을 위해 봉사했다. 관광객들은 특히 입암서원 앞에서 한국학중앙연구소 김일권 교수로부터 입암 이십구곡(立巖 二十九曲), 고구려 오신도와 동서양 별자리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의성문화원

세계유교문화대축전



"삶에 담긴 유교, 기품있는 여행"이란 주제와 "사람을 받들고 세상을 사랑하고"라는 슬로건으로 의성을 포함한 경북북부지역 9개 시군에서 열리는 세계유교문

문 화 원 이 모 저 모 NEWS

화축전이 2010년 4월 - 10월에 열린다. 우리 의성문화원(원장 허영자)에서는 “고가(古家), 예술의 옷을 입다”라는 주제로 아간고가공연을 연 12회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 5월 15일과 29일은 사촌마을 민산기념관에서 갖가지 공연이 성대하게 열렸다. 공연문화에 소외된 군민들의 문화적인 관심과 호응이 기대이상이었다. 달빛과 별빛을 조명삼아 한국무용의 춤사위를 타고 관악연주의 아름다운 음률이 흐르고 그 음률을 타고 고즈넉한 시냇물이 봄밤의 서정을 한층 돋구어 준 감동적인 공연이었다. 특히 사촌마을 민산기념관의 주인인 민산선생은 자는 성원, 호는 민산, 본관은 풍산이며 문경공 윤릉의 11세손 병춘 류태춘의 증손이다. 고종 10년 겨울 국군이 어지러울 때 영남유림들의 추대를 받아 만인소수(萬人疏首)가 되어 대원군 봉환소(奉還疏)를 올렸으나 윤하는커녕 함경도 길주로 유배되었다. 공은 부를 탐하지 않았으며 오직 학문에만 열중하였고 저서로는 삼강박의, 북천근폭록, 북행일록, 서행일록, 민산문집등이 있다. 현재 민산기념관은 사촌리에 공의 증손 유시억이 2006년 사재를 털어 민산정과 유거재를 건축해 놓은 자랑스런 이 지방 유교문화의 중심지이다.

포천문화원

2010 지역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개강식 개최
다문화 어울림 여성합창단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3일 수강생 및 문화원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지역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다문화 어울림 여성합창단 교육” 개강식을 가졌다. 이날 개강식에서 이만구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문화 어울림 여성합창단에 참여해 주신 이주민 여성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음악을 통해 우리말을 쉽게 배워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생활의 활력과 즐거움을 찾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원에서도 교육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 할 것이며 교육을 통해 좋은 결과와 보람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문화원 ‘다문화 어울림 여성합창단’은 이주민들이 한국의 어르신들과 함께 합창단 양성교육을 통해 합창단을 구성하여, 연습과 공연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어울리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음악과 노래를 통한 우리말 배우기를 생활화하여 이주민들의 성공적인 정착과 문화를 통한 언어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둔 사업이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포천문화원 · 선한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주관하여 실시되며, 포천문화원 ‘다문화 어울림 여성합창단’ 양성 교육은 12월 말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씩 무료강의로 진행된다.

노래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이주결혼여성 및 노래를 취미생활로 배우거나 음악을 좋아하는 한국인 여성은 누구나 신청 할 수 있으며, 문의는 포천문화원 ☎532-5015, 5055, FAX 536-1020, 홈페이지: <http://www.pcmh.or.kr>, e-mail: kgpc1986@yahoo.co.kr으로 하면 된다.

함안문화원

"2010 찾아가는 문화탐방"



함안문화원(원장 조훈래)에서 지난 5월 26일 회원 150여명이 인근 비화가야(창녕군와 금관가야(김해시) 답사가 있었다. 잘 정비된 봉황동 유적공원과 대성동 고분박물관을 보고 우리 아라가야도 벤치마킹 하여 우수함을 널리 알렸음 하는 바람이다. 특히 국립김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말감총과 미늘석, 수레바퀴토기 등 우리 유물을 보면서 감격과 아라가야의 후손으로 우월성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돌아왔다.

환영과 인내에 친절을 베풀어 준 창녕문화원(원장 이이두)과 김해문화원(원장 한고희)에 고마움을 전했다.

함천문화원

문화원 해외결연 및 해외행사 사업



합천군은 향교가 4개소나 있어 공자의 탄생지인 중국 산둥성 곡부지방과 문화교류를 갖고자 합천문화원(원장 차관암)에서는 중화민국 산둥성 곡부시 인민정부와 결연을 2008년 2월 20일 맺어 서로 문화유적지를 탐방하고 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2회에 걸쳐 60명의 문화 교류단이 곡부시에 있는 태산, 공묘, 공림과 추성시에 있는 맹자의 탄생지 강태공의 사당 등을 둘러보고 왔으며 금년에도 중국유적지 탐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양국 간의 우호를 증진키 위하여 각종행사가 있을 땐 초청하여 왕래하기도 한다.

이색적인 문화학교 운영

합천은 옛부터 남명조식, 래암 정인홍, 왕사인 무학 대사 신재 주세붕선생 등 많은 선비의 배출과 4개소의 향교를 갖고 있는 선비의 고장으로서 불교문화와 유교문화의 산실이기도 하다. 이에 합천군은 그 맥을 이어 많은 선비를 배출 하고자 각 향교와 면사무소에 9개소의 한문대학을 개설하여 초급반 및 중급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합천문화원에서는 어르신 문화학교로한문지도사 양성교육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에 걸쳐 한문지도사 양성과정을 73명이 수료하여 현재 합천군에서 운영하는 한문대학에서 9명이 전문 한문 강의를 하고 있다. 2009년에는 자체적으로(합천문화원) 한문고급반(맹자)을 운영하여 오다가 예산이 부족하여 합천군으로 이관하여 고급반을 1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사서삼경을 모두 마칠 예정이다.

거창문화원

2010년도 경로효친모범청소년 시상식 개최



거창문화원(원장 정주환)에서는 지난 6월 9일 거창박물관 별관에서 2010년도 경로효친모범청소년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거창교육청 이흥국 교육장님과 각급 학교 선생님들을 비롯해 학부모, 문화원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예의바르고 경로효친사상이 뛰어난 모범 학생을 추천받아 초등학생 16명, 중학생 11명, 고등학생 7명 등 총 34명에게 시상하였다. 시상이 끝난 후에는 서울우유 거창공장을 견학하였다. 이번 행사는 웃어른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보살필 줄 아는 태도가 사라져 가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를 다스리나마 순화시키고 건전한 사회 풍토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5회 거창단오제 개최



문화원이모저모 NEWS

거창문화원(원장 정주환)에서는 지난 6월 16일 상림체육공원(원상동 숲)에서 민속 고유의 명절 단오를 맞아 제5회 거창단오제를 개최하였다.

군민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썰매대회, 노인 팔씨름대회, 장기두기대회, 여성투호놀이대회, 그네뛰기 대회 등 민속경연대회와 도기술 시음회, 짬뽕 공예 전시, 부채전시, 민요판소리 공연, 실버연극단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들로 풍성한 단오제 행사가 되었다.

특히 올해 행사에는 거창문화원과 거창한시(회보)계가 공동주관한 제5회 거창전국한시상백일장 시상식과 입상작품 전시회를 함께 개최하여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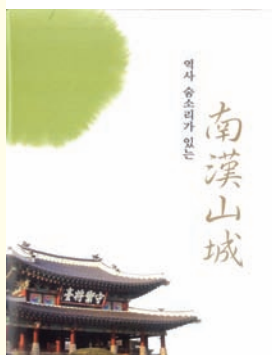
성남문화원

‘오리뜰 농악’ 시연회

성남문화원(원장 한춘섭)은 '2010 성남 향토 민속놀이 시연 1차 사업'으로 '오리뜰 농악' 시연회를 지난 6. 13(일) 오후6시 분당 구미동 야외공연장(탄천변)에서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는 단오를 맞이해 길놀이, '설장구', '고사', '비나리', 오리뜰 농악 시연(쇠놀이, 농사놀이, 버꾸놀이, 열두발 상모)으로 진행됐다. 한편, 정재영 경기도의원(문화원 부원장), 강한구, 김해숙 구미동 시의원과 권선용 구미동장 등 500여명의 시민이 함께 어우러져, 신명나고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시연회가 마무리됐다.

〈역사 숨소리가 있는 남한산성〉 발간



성남문화원(원장 한춘섭)은, 남한산성에 숨겨진 역사와 숨결, 문화유산에 얹힌 이야기들, 이곳을 다녀간 역대 임금들의 심정, 문인과 학자들의 애국 혼 등을 찾아내어 소개한 〈역사 숨소리가 있는 남한산성〉 단행본을 최근 발간했다.

이 책에서는 남한산성의 축성에 얹힌 매 바위와 청량당의 슬픈 전설, 효자 이야기, 백성들과 함께 고락을 함께 한 청백리, 국운이 기울어져도 지조를 버리지 않은 선비, 빛나는 문장으로 이름을 떨친 문장가, 굳은 신앙을 지키고자 순교한 천주교인, 나라를 지키고자 일어났던 민초들의 의병항전,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둘러싸여 있는 성남, 하남, 광주 일대의 수많은 역사인물들의 이야기를 하나 하나 현장 사진과 곁들여서 소개했다.

이 책의 저자인 성남문화원 한춘섭 원장은, 2006년 4월 25일 '광주문화권협의회' (광주·성남·하남문화원) 창립을 주도하여, 〈산성논지〉 발간, '삼봉 사생대회' 개최, '경기 광주권 순국선열 추모제' 등 3개시가 공유하고 있는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공동 사업을 전개해 오면서, 2009년에 〈남한산성〉을 소재로 한 특집 기사를 언론에 연재 한 바 있다.

저자 한 원장은 "남한산성은 원래 광주라는 행정구역에 포함되어 있다가, 성남·하남시가 차례로 분리 독립되었으나 기본적으로 같은 문화권에 속해 있어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보 존해야 한다"며, 발간사에서 "남한산성이 품고 있는 큰 역사의 숨소리를 통하여 옛 광주문화권의 통합과 화합·번영의 시대를 열어 가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고자 했다"며,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성남·광주·하남의 시민들이 같은 문화의 뿌리 속에서 공존하며, 살기 좋은 도시로 가꾸어 나가는 이해의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문의: 성남문화원 756-1082

청도문화원

문화원 회원 '2010대한민국 부채예술대전' 전통미술대상 수상



청도문화원(원장 이복수)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민화강좌를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생소한 문화교실이라 회원들의 참여가 걱정되었지만 열성이 대단해서 삼체상을 두 번이나 받았다.

옛 선조들의 정성이 담긴 토속적인 색채에 호감이 가는지라 모두들 밤낮이 없이



열을 올린 보람이 있어 자축을 했다마는, 금년에는 놀라운 실적을 올렸다. '2010 대한민국 부채예술대전' 민화부분에 전통미술대상 이연 주, 삼채상 김성광 김말순, 입상 이춘기 이경자 이분들이 청도문화원을 전국에 알린 장한 인물들이다. 문화교실은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본인은 생활의 여유와 풍요로움을 가지고, 남에게는 자신감을 주어 동참하게 하는 지역에 보배로운 행복교실이라 여긴다.

경주문화원

중국양주시 문화교류행사
중국 양주시 문화원 방문



경주문화원(원장 오해보)은 경주시와 우호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양주시를 방문, 두 도시 간의 문화교류 행사를 가졌다.

경주문화원 이사들을 주축으로한 (공연단원 포함) 24명이 참가한 이번 경주·양주 문화교류단은 6월 8일부터 12일까지 4박5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양주시와의 문화교류를 마치고 돌아왔다. 이번 해외 문화교류의 내용으로는 양주시의 문화

시설 현황파악, 시설건축, 의견교환, 양국의 전통공연 등 다양한 문화교류를 실시하였으며, 이날 동위하이 양주부시장은 환영만찬사를 통하여 일찍이 양주는 고운 최치원 선생이 유학하여 관직을 지내며, 황소의 난을 진압 하는 등 경주와는 인연이 각별한 곳으로 이번 경주문화원교류단의 방문을 시작으로 양주와 경주간의 문화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만찬에는 동위하이 양주부시장을 비롯한 루수화 양주시 문화국장 등 문화 관련 공무원들을 포함 공연단 20여명이 참석 하였으며, 중국 전통민요, 인형극, 변검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며 성대한 환영을 하였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 2008년 11월 24일에 중국 양주시와 우호결연을 맺었으며, 그간 경주시 공무원방문 등 8회에 걸쳐 교류를 하였으나 우리나라 민간교류단의 방문은 처음이다. 앞으로 경주문화원에서는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하여 해외 시 자매도시와의 문화교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중국 양주시는 중국 남동부에 위치한 강소성의 중심으로, 면적은 6,634㎢이며 인구는 470만명 대운하의 발원지로 예로부터 수상운송과 상업이 발달하였으며 수서호, 대명사, 최치원 기념관, 등의 유적이 있다. ※ 특히 최치원 기념관은 앞으로 1,2차 사업으로 그 규모를 현재보다 더 크게 확장한다는 기념관 관장의 설명이 있었다.

바로잡습니다

지난 6월호 우리문화 기사 중 '담 안의 여성, 길 위의 여성' 중 25쪽 첫줄의 말의 한자 표기를 廐에서 馬로 정정하며, 열 번째 줄 '형수가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청하는데 아버지가 막을 수 없었다. 그래서 형수의 요청대로 길 떠날 여장을 준비했다. 오후에 출발했는데 가마를 소에 매었다. 서숙부 윤(潤)이 동행하였다. 1766년에도 형수는 3월 19일에 친정 행차를 하였다.' 부분은 인용문임을 밝힙니다.

우리문화소식

NEWS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서울 코엑스에서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가 5월 25일(화) 개막해 28일(금) 폐막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유네스코의 주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문화예술교육부분 국제 행사로 129개국 2천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지방문화원은 후원과 적극적인 홍보로 큰 역할을 해내었다.

(사진 이대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과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

6.2 지방선거 문화원장 출마 결과



지난 6.2 지방선거에 다음과 같이 지방문화원장의 참여가 있었다.

대구 남구문화원 이재녕 원장 시의원(한나라당), 대전 유성문화원 한근수 원장 시의원(자유선진당)으로, 경기지역에서 광명문화원 안병식 원장 시장(한나라당), 의왕문화원 이종훈 원장 도의원(한나라당), 충북 음성문화원 최병윤 원장 도의원(민주당)에 출마하여 대구 남구문화원의 이재녕 원장과 대전 유성문화원 한근수 원장, 충북 음성문화원 최병윤 원장이 당선되었다.

2010년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상반기 컨설팅워크숍



“이번 워크숍, 정말 재밌었습니다”

지난 6월 대전에서 있었던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워크숍에 참석한 대다수의 지방문화원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한국문화원연합회(회장, 최중수)는 지난 6월 10~11일 대전광역시 통계교육원에서 2010년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상반기 컨설팅워크숍, ‘사업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컨설팅’이라는 주제를 정해 집중컨설팅이 이뤄졌다.

특히 ‘사업 키워드 브레인라이팅’을 통해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모아졌으며, 사업유형과 단위사업 등 5개 분임으로 나눠 진행된 컨설팅에서는 사업초기 운영 및 성과관리, 우수사례 공

유 등 집중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방문화원 실무자를 응원하고 배려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다.

특히 워크숍의 참석자들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기 쉬우나, 이번 워크숍에서는 문화원참석자들이 이 사업의 ‘실천적 주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참석자모두의 얼굴이 들어간 대형 현수막과 파워포인트 동영상 제작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번 워크숍에는 최중수 회장과 문화부 지역문화과 노정동사무관을 비롯해 지방문화원에 111명, 컨설턴트 6명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원 장 동 정 NEWS

신임 원장



서울 용산문화원장 우대영(禹大永)

서울시공무원 임용, 서울시립박물관장 역임
용산구청 재무과장 행정관리국장 역임
서대문구 부구청장 역임
용산구 부구청장 역임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역임



대구 수성문화원장 윤종현(尹鍾賢)

(주)세진E&C 대표이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성구지회장



인천서구문화원장 박한준(朴漢濬)

1957년생, 인천 서구문화원 수석 부원장
인천서구문화원 부설 서구향토문화연구소장
푸른희망 서구의제21 공동 대표
서구21c 정책자문위원
인천서구구립예술단 운영위원
근세조선 서구인물지 등 편찬



강원 양양문화원장 양동창(梁東昌)

1943년생,
전 양양부군수
재선임



온양문화원장 김시겸(金是謙)

1944년생,
아산시 사회산업국장
아산포럼공동대표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 고문
재선임

퇴임 원장



서울 용산문화원장 박영희(朴永姬)

1935년생,
시조시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소천교육연구재단 설립자



대구 수성문화원장 박순복(朴順福)

1959년생,
(주)티파티조명 대표이사
대구수성경찰서 학교폭력근절 대책위원장
대구지방경찰청 양궁협회 이사



인천 서구문화원장 정인표(鄭寅杓)

1933년생,
경기도 부천시 장학사
경일초등학교장 정년퇴임

지역문화를 위해
헌신하신 뒷모습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주제 : 한민족의 문화유산
과목 : 국사·역사
학년 : 고등학교
교과 : 한국사

공공부문
소재

- **종교주제**
- 향토문화 연구부류(논문) : 역사, 민속, 전통문화 등
 - 향토문화 조사부류(자료) : 역사, 민속, 전통문화 등
 - 향토문화발행부류(연설) : 자연의 역사, 민속, 전통문화

-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상
- 여가계획서 접수: 5월 17일(금) ~ 21일(금)
 - 발표: 5월 말(신청된 5개팀의 발표에 한하여, 재발매 50만원 지원)
 - 제출서류: 개인(단체)소개서, 활동계획서, 시놉시스
 - ※ 선정된 팀은 본 접수 기간 내에 완성작을 제출
- 수상과 시상(발표): 2010년 9월 경

- **지원자격** : 향토문화에 관심있는 일
- **지원제한** : 보 공모전 대상 수상자

- 항토시안구부면(노안), 항토시안구부면(지문)
- 부량: A4 10장~20장분의 작성상 필요인 자료는 기금적 배려
- 작성: 일정한 논문 체계에 맞게 작성(서론, 본론, 결론)
- 항토시안포토보관(문장)
- 부량: 30~60년 이내
- 규격: 35mm/16mm 필름 및 H.D, H.D, DV로 촬영하여 DVD로
- 예비사항: 사진과 함께 시안시노스 함께 제출

● **향토시론테초부무(영산)**

- 35mm/16mm 필름 및 HD, HDV, DV로 촬영하여 DVD로 제출
예비심사시 제출한 시놉시스도 함께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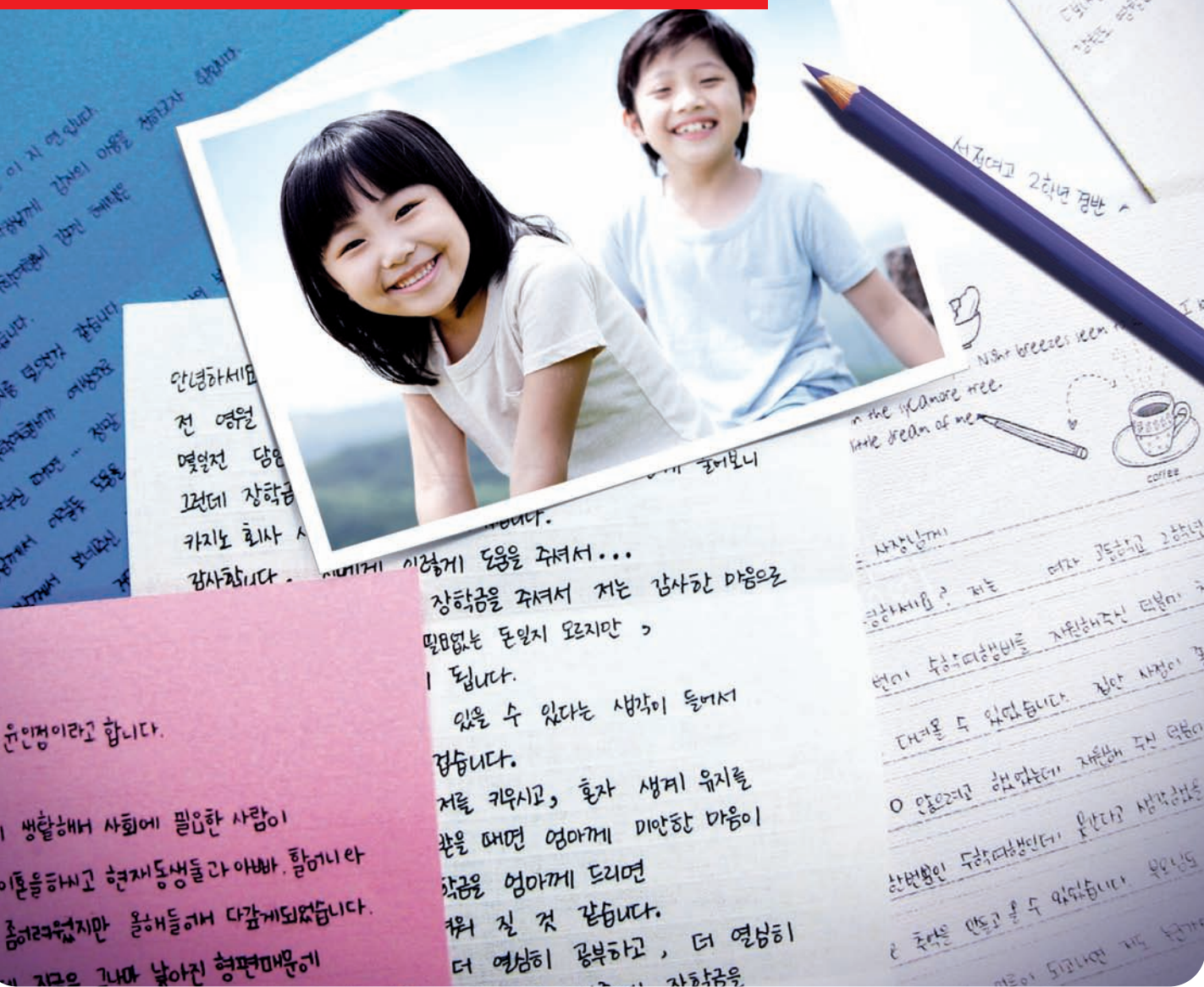
- **제출 서류**
CD(원고), 촬영물 2부(원고), 이력서
※ 제출서류를 미리 시 접수 불가, 재 접수 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 **접수 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 **접수처**

새로운 상상

구분	시	상	정	비고
부담 없음	미상 (국유재산)	500	원	
임대료 없음	부동산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350	원	
임대료 있음	부동산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50	원	
임대료 있음	특별정 (국유재산)	150	원	
임대료 있음	부동산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350	원	
지료 없음	부동산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50	원	
임대료 없음	부동산 (국유재산)	250	원	
임대료 있음	부동산 (국유재산)	100	원	
합계		2,200	원	

●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한국영화는 '비평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 시기에 제작된 한국영화는 '비평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 시기에 제작된 한국영화는 '비평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하이원리조트가 우리 소중한 꿈나무들과 함께 희망을 열고 있습니다



폐광지역의 아이들에게 똑같은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 주고,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소년 소녀 가장으로 살아가는 청소년을 돕기 위해, 하이원은 행복다들들 사업으로 지역사회에 희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강원도 폐광지역은 정선 태백 영월 삼척에 걸쳐 있으며 과거 주요한 에너지 생산지역이었으며, 현재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관광메카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